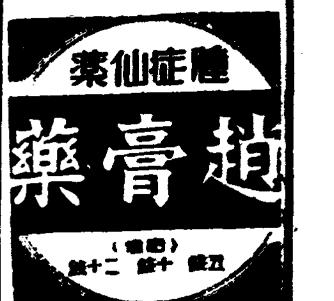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十九日(水) 本紙夕刊十二面



社說

修學旅行의 意義와弊害

一

學問研鑽의 거룩을 가저서 或名勝을 구경하고 或 古蹟을 돌아보고 또或 域內各地의 民度와 人心을 살피어 써 實際의 見聞을 느끼는 것도 勿論 必要한 일이요 한 거름 나아가서 險한 고개와 가푸른 비탈을 오르고 길업는 森林을 헤치고 凶獰한 波濤에 부대끼어써 意氣의 鍛鍊을 도모하는 것도 勿論 有益한 일이다. 一年一度의 修學旅行으로 上記두가지의 意義를 完全히 遂行키에는 距離나 아직 멀다고 하겟지만은 그래도 그만한 意義를 一般 學徒들에게 普及시키는 機會를 이룸이 아니라 團體旅行인 點에서 一種 現代生活의 訓練도 되고 또 同窓學友인 點에서 互相親睦의 增進도 되는만큼 어디로 보나 意義가 적지 안 한 行事다. 或者 修學旅行의 弊害를 들어 그 廢止를 力說하는 사람까지 잇스되 우리는 決코 그러한 極端論에 贊成치 못한다. 每事一利잇는 곳에 一害 따르는 것으로 害만 보아서 곳그 利를 無視하지 못 할 것인즉 修學旅行에도 弊害 잇는 反面에 그 必要코 有益한 點을 이저서는 안된다.

二

그러나 近來 各學校의 慣例로써 본다면 廢止를 말하는 사람에게도 一理가 업지 안타고 首肯되는 바 잇스니 첫재 모든 學生에게까지 每月 또는 每學期마다 旅行費의 先納을 半强制的으로 要求하야써 貧困한 學生으로 하야금 一層 더 學資의 困難을 當케하는 것이요 둘째 學校에 納入된 旅費以外제각금만흔 용돈의 携帶를 許하야써 學生身分에 넘치는 豪華로운 旅行을 하게 하는 것이요 셋재 大槪로 修學旅行의 根本意義를 閑却하야 普通의 訪花隨柳나 다름이 업서 보이는 것等이다. 萬一 修學旅行이 이와 가티 될뿐이라고 할찐댄 우리도 그 廢止에 共鳴치 안 할 수 업는 일이라 各學校當局 또는 그 監督官廳當局에서는 모름즉이 一考를 더하야 지금의 弊害를 되도록 적게 하는 同時에 그 根本意義의 遂行을 되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 위선 學資困難한 學生이 잇거든 旅費納入의 負擔을 減하는것이어떠며 또 全學生에게 旅費納入을 要求하거든 좀 싼 旅費의 가까운 距離를 取하는것이 어떤가. 또 旅行의 一切費用을 學校에서 마련서 學生들로 하야금 金錢의自由使用을 許치안는것이 어떤가.

三

在來 우리의 祖上들은 山을 실혀하고 물을 실혀하얏다. 一言으로 말하자면 山河를 征服할 氣慨나 人情世態를 觀察하고시픈 慾望도 업섯고 오직客苦 客懷를 誇張하기에 能하얏다. 工夫도 오직 冊床 머리의 工夫다. 오늘날 世代에 잇서서 그러한 工夫는 아무 意味도가지지 못 한다. 우리는 山으로 나가자. 물로 나가자. 하이킹도 조코 探險도 조타. 더구나 靑年學徒들의 修學旅行은 奬勵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靑年學徒들의 修學旅行은 金剛山을 가거나 慶州를 가거나 그보담 더 멀리 어디를 가거나 일찌기 우리 조상들의 山川遊覽과는 좀더 달러야만 된다。요사이 하이킹의 流行과 함께 하이킹이 적지안흔 弊風을 어루거니와 修學旅行역시 그 根本意義를 떠나서 弊害만을 끼치게 되여서는 실로 慨嘆하기 마지 안 할 바의 現象이다。

文化機關全部閉鎖 廣東全市大亂混
市黨部는奧地로移轉

【香港十九日發同盟】十九日의 大公報는 廣東市中의狀況을 左와如히報하고잇다

廣東當局은 連日市民의 奧地避難에 忙殺中인바 人口는 이미 三十萬前後로 減少하고 各商店은 繼續營業을 停止하고잇다 銀行은 全部閉鎖하고 奧地移轉準備를 急히하고잇스며 主要新聞도 印刷困難에 當面하야 或은 紙數를減하고 或은 發行을 停止하며 各學校는 授業을中止하고 特히 市內의文化機關은 全部 閉鎖된形勢다 物價는 漸次로騰貴하고 物資는 甚히欠乏을告하고잇다 夜間에도 電燈이 點火되지안으므로 街頭는 死都의形相을 呈하고잇스며 二、三日前부터 氣候는 極히激變하야 冷氣조차加하게되엿스므로 難民의苦痛은 益益甚하여간다

【香港十九日發同盟】廣東에서의 確報에依하면 廣東省市黨部는 十八日廣東으로부터 撤退 奧地某所에 移轉을完了하엿다

上陸部隊猛進擊에 武漢三鎭大動搖
快速隊羅浮山線에進出

【○○十八日發同盟】淡水方面으로부터 前進中의 ○○部隊는去十四日午後三時頃 淡水 惠州의中間○○에서 約六百의 敵과 遭遇하야 少數의 騎兵力으로써 이를 完全히 擊滅하고 自動車六臺 馬二十 小銃 彈藥을 多數鹵獲하엿다 그다음 十七日夕陽 石龍東方 八十里의 東江南岸에서 惠州로 부터 의 敗敵에 遭遇하야 또다시 이를 殲滅한後 다시 西進을 繼續 敵의 武器輸入路인 武漢三鎭後方의 大動脈 廣九線을 威脅하게되엿다 如斯히 하야 皇軍의猛進擊에 廣九線路의 完全遮斷도 不遠하며 나어가서는 武漢三鎭의 大動搖를 招來하야 그崩潰도 目睫間에 切迫한觀이잇다

【惠州十八日發同盟】大本營陸軍報道部派遣班發表 飛行機의 報告에依하면 ○○快速部隊의一部는 十八日午後四時 羅浮山西側(增城東方八키로)의線에 進出하엿다

博羅敗走敵을急追

【○○十八日發同盟】敵의第一陣地博羅는 我○○、○○兩部隊에依하야 十六日午後三時占領되고 我軍의追擊이 너무나急한關係로 博羅의敵은 準備陣地에 就할餘暇도업서 겨우六十餘의敵이잇섯슬뿐으로 어물即時潰走하고 我軍은 同地時有의炎天을 무릅쓰고潮水와如히突入한後 다시敗敵을急追中이다

惠州敗退敵潰滅

【惠州十八日發同盟】大本營陸軍報道部派遣班 十八日午後八時發表

十四日 午後三時半頃 淡水西方에서 約六百의敵을 擊滅한 ○○部隊는 昨十七日夕刻 石龍東方 約八十里의 東江北岸에서 惠州로부터 敗退하는敵에 遭遇하야 이를潰滅시키고 繼續하야 西進中이다

我○○部隊 增江東岸進出

【惠州十九日發同盟】大本營陸軍報道部派遣班 十九日午前十一時半發表 十九日午前九時 ○○部隊는 增城東方二粁의線에 達하고 先鋒은 增城○키로東側 增江東岸에 進出하엿다

伏見宮博義王殿下 今日薨去 (宮內省發表)

【東京電話同盟】十九日午前七時宮內省發表

伏見宮博義王殿下께서는 今日午前二時 御本邸에서 薨去하시엿다

御發作이잇섯고 今十九日午前一時再次强烈한 御發作이잇서 여러가지로 治療하여 드렷스나 午前二時 心臟痲痺로 薨去하시엿다

御慰問品下賜

【東京電話同盟】支那事變勃發以來 第一線에서 御奮鬪하시여 昨夏는 令靈의御戰傷까지 바드신海軍佐海軍大學校敎官으로 계신伏見宮博義王殿下께서는去八月二十八日以來 御宿痾인喘息대로에 麴町紀尾井町御殿에서 御靜養하고계시는바 今曉一時頃부터 激烈한御發作으로 御重態에陷하시엿스므로 至尊께옵서는 매우御軫念하옵사 卽時御慰問品을 賜하옵시는一方 御問病으로는樺山侍從을 御慰問使로서는 戶田侍從을 御殿에各差遣하옵시여 御叮重히 御慰問하옵셧다

護國의英靈에게 天皇陛下御親拜
靖國神社臨時大祭第二日

【東京電話同盟】光輝잇는 武勳을 遺하고 聖戰의 犧牲이된 陣中의 英靈을 祀하는 靖國神社臨時大祭第二日인 十九日은 恐懼하옵게도 天皇陛下의 行幸을 拜하사 九段의 社에 奉拜하는 二萬의 遺族의 至極한 感激裡에 森嚴히 執行되엿다 同朝 拜殿에는 紫色幕에 御紋章이 白色으로 빗나고 左右에 二旒의 錦旛가 燦然히 反映하야 神域은 一層森嚴하엿다 午前九時 鈴木宮司는 衣冠의神祇勿을正히하고 高原權宮司 臨海軍係官等과 가티 本殿에 參集警國의齋, 軍樂隊의 奏樂裡에 鈴木宮司는참가히 御靈舍開하고 典儀의 警蹕終了하엿다 米內海相 板垣陸相 川岸大祭委員長 在京軍部各官衙 近衛第一兩師團各部隊總代合祀關係部隊代表의 뒤를이어 高松宮殿下를爲始 各皇族殿下御參着 近衛首相 平沼樞府議長以下 文武百官은 모두 軍裝에 或은 通常服에 威儀를 正히하야 午前十時 中門內 定한位置에 各各參着 鈴木宮司는 이에앞서 禮前에 祝詞를 奏하고 陛下의 着御를 御奉待하엿다 第一鳥居로부터 神門 中門에 至하는 境內에는 參列의 光榮에 全國에서 上京한 新合祀者遺族 約二萬이 肅然히 堵列하엿다 陛下께옵서는 御軍裝도 凜凜하옵시게 大勳位副章을 佩하옵시고 各種勳章을 御佩用 百武侍從長 御陪乘을拜하고 松平宮相 宇佐美武官長、石黑行幸主務官等을 隨從케하옵시고 略式自動車 鹵簿로 午前十時 宮城御出門 九段第一鳥居에 御到着하옵시매 恂恐하옵신 面列한 遺族에 御目禮를 하옵시면서 進御하옵시다 龍顏을 拜하게된 各遺族은 千載一遇의 光榮에 感激하엿다 陛下께옵서는 午前十時十分拜殿前에御着 川岸委員長의御先導로 陸海軍大臣 百武侍從長을 隨從케하옵시고 拜殿에 進御 御後 鈴木宮司의 御先導로 다시 拜殿木階를 오르옵시사 御拜 玉串을 御手에一萬二百三十四柱의 全合祀英靈을爲始 幾多護國祭神에게 懇懃하옵시게 御親拜하옵셧다 時는 午前十時十五分 參列者一同은 勿論全國民도 이時刻을 期하야 一齊히 拜禮忠魂의 冥福을 默禱하엿다

御拜를 畢하옵신 陛下께옵서는 木階를 나려오시사 同二十分諸員奉送裡에 自動車로 同社御發 再次遺族에게 御目禮를賜하옵시면서 十時三十分 天機御麗하옵시게 宮城에 還幸하옵셧다 社殿에서는 皇族의 御拜가 잇슨後 諸員拜禮 遺族의 昇殿拜禮가 잇슨후 御儀는 感激裡에 莊重히 進行되엿다

蔣四川軍增援督促

【香港十九日發同盟】成都來電에依하면 王纘緖의 四川省主席就任에 出席目下成都에잇는 軍事委員會重慶行營主任張群에 對하야 十八日蔣介石은 四川省政府에對한 諸事業의 促進을嚴命하엿다 그內容은 天然資源의 開發、財政의充分한 經濟的寄與、治安維持의 重要事項을 包含하는 것인바 이外에四川軍의 前線增援을 督促하엿다고한다

附近要地總占領에 德安死命完全制壓
全線一齊猛攻擊을開始

【關王廟十八日發同盟】十七日 沒頃 一發의狼火를 信號로 軍工路上의 靑石橋를 中心으로南北四키로의 堅陣에 據한敵이崩壞하기 始作한것이보이자 忽然히 敵陣全般은 崩壞하고 一齊히 潰走하기始作하엿다 敵陣動搖를發見하자 間髮을 주지안코 我軍은 全線一齊히 徹宵總追擊戰을開始 德永 廣瀨 田上各部隊는 南方으로부터 西進하야 十八日午前八時 郭店(德安西南四키로)을 攻略하고 同九時 에는 벌써 德安市街를 南北으로貫流하는 德安河左岸에達하엿다 이와서로 呼應하야 軍工路及 그以北山岳地帶를 追擊中의 小原 矢野 岩下 津田의各部隊는 一齊히 三杆를 躍進하야 午後二時 南潯鐵道를 橫斷하고祝家高地에 到着하엿스며 右翼山家尾家 布施各隊는 午後二時半祝家北方의 貫嶺高地를確保하고 午後四時를 지나 烏石門(德安北方四키로)으로부터 德安에至하는 德安河左岸地域一帶를 占領하엿다 於是에 德安의死命은制壓되어 陷落은單只時間問題로되엿다

【關王廟에서十八日發同盟】總崩壞한 八個師及四萬五千의 敵大軍은 德安城東方을 흐르는 德安河右岸地區에 敗退하야 拾收할수업는 大混亂에 陷하엿는데 我軍은 德安東側에 近接하야此敵을 猛攻中이다

【關王廟에서十八日發同盟】德安防備의敵은 敗走에際하야 河幅五十米의德安河橋梁을 燒却하고 德安北方陣地로부터 小銃 機關銃 迫擊砲로써 斷末魔의抵抗을繼續하며 我軍은同河를挾하고어에猛攻을加하야 激戰中이어다

湖北省南部要衝 崇陽을急襲潰滅

【上海十八日發同盟】艦隊報道部十八日午後十一時發表 精銳○○機는 今日午後海軍航空隊의 ○○佐、各其山上少佐、菅久少佐、福島大尉及小福田大尉指揮下에 秋空노피 銀翼을連하야 大擧湖北省南部要衝崇陽(粤漢線蒲圻驛을距하기 東南二十粁)을急襲、城內及附近陣地一帶에 全彈을集中 約十個所에 大火災를이르켜 敵이唯一의軍事施設로 依賴하는全市를 潰滅에 歸케한後 全機悠悠히 歸還하엿다

江北地區로猛進中

【廣濟十九日發同盟】昨日來繼續하야 江北地區에猛進中의 佐野部隊는 武王尖을 岩崎部隊는 李店鎭을 若松部隊는 銀家灣을 各各 午前中에 攻略突破한後○○에 向하야 猛進中이다

萬人寨를奪取

【○○十九日發同盟】信陽의敗敵은信陽 西南方三十粁 潭家山西方三키로의 尖山附近에 堅陣을築하고 頑强抵抗을 試하려고 蠢動을繼續하고잇는바 我軍의一部는 十八日正午 萬人寨를 奪取하고 이어南方高地를 攻擊中이다

"博羅西方에서 日軍을阻止한다" 廣東省主席 吳鐵城의豪語

【香港十九日發同盟】漢口來電에 依하면 廣東省主席吳鐵城은 十八日 漢口에잇는 友人에게 電話로써 南支狀況에對하야 左와如히述하엿다

支那軍은 博羅西方地區에서 堅固한防禦線構築을完成、이에依하야 日本軍에 對抗하야 南支의戰況은 支那軍에게 매우有利하게되엿다 日本軍이 바이야스灣에 上陸한것은 支那側이 無準備하엿기때문이나 至今에 支那軍은 前回의堅陣에依據하야 東江戰線에서 日本軍에抵抗하는中이다 아마도 日本軍을 博羅西方마지노線에서 阻止할수가잇슬것이다

時事解說 惠州

◇皇軍이 白耶士灣에 上陸한後에 第一着으로 進出한곳은 淡水요 그다음 에 敵의 第百五十一師와 上陸部隊가 第一着으로衝突을 일으키여서 大勝을博한곳은 惠州다。그러면 이惠州는 어떤곳인가? 이곳이 南支一方에 잇는 城市이기 때문에 그리 有名하게 人口에 膾炙는되지아닛다。그러나 其實은 有名한곳의하나로 이곳의占領은 意義가 자못重大한바가 잇다。

◇惠州는 惠陽이라고하는데 一九○○年九月 孫逸仙이가 처음으로 革命의 義軍을 이 惠州府內三州田에서 이르켯고 特히 日本人에게는 由緖가 잇는곳인데 그것은 이 革命軍中에 山田良政이라고 하는사람이 孫逸仙의 革命軍에 加擔하야 惠州附近에서 戰死한일이 잇기때문이다 民國時代에 와서는 一時 陳炯明의 根據地로 되엿다가 十四年에 蔣介石이가 이곳을 攻略하여서 廣東은 비로소 國民黨의 天下가되엿던것이다。惠州가 또한가지 有名한 것은宋代의 名文人 蘇東坡가 이곳에 謫居하엿기때문이다 惠州流謫中에 東坡는 一代의 名詩를 많이 吟詠하엿는데 이곳은東坡의愛人 杭州麗人 朝雲이가따러와서 十二年間 同居하고 잇섯던곳인데 只今도 蘇文忠公祠가 잇고 그곳에 東坡의閑居하던 白鶴峯이 잇다 그外에도 惠州城外에 잇는 西湖라는湖가 四十餘里나 되는湖水가 잇고湖水를 橫斷하는東坡堤가잇서서 東坡堤는 東坡의文名과 가티 千古不變으로 傳하고잇다。

◇惠州는 廣東으로 부터約九十里나되는 東方에 잇는 東江支流인 東江北岸에 位한 小城市다 名勝으로는 西湖、大聖寺塔、六如亭、玄妙觀等이 有名하다 이 惠州가 今番에 余漢謀麾下 第百五十一師長 莫希德이가 鎭守하야 防備를 嚴히하고 잇섯는데 皇軍一擊之下에 지난 十五日 早朝 無難하게 陷落된것이다 이와가튼 戰略이 이곳에서 이러나리라고는 몃칠前까지 누구나 꿈도 꾸지못하엿슬것이다。

莫希德銃殺?

【香港十九日發同盟】淡水、惠州方面防備最高指揮官莫希德은 敗戰의 責任으로 香辨에移轉된後死刑에處하엿다고傳한다

千峰山敵을攻擊

【三溪口十九日發同盟】陽新西方으로 猛進擊을繼續하는 人見部隊는 十九日拂曉 柳家山占領에繼續、千峰寺敵에對하야 攻擊을開始하엿다 이와同時에 寺田部隊는 大田畈 大雞山線을防牌로 攻略勢를 取한 敵을正面으로부터 銃砲突擊을 加하고 南北으로서 呼應하야 寸分의틈도업시 進擊을 續하고잇다

河南省南陽을猛擊

【○○基地十八日發同盟】我秋山 竹田、今川各部隊陸의荒鷲는 擊滅戰에依하야 敵第一戰區의 飛行基地를 一氣에擊破코저 十八日午前三時 堂堂約○○機의大編隊로 河南省南陽(新陽西北方百七十키로)을 猛擊하엿다 廣大한 南陽飛行場에는 孤影悄然 大型機一機 小型機數機가 보일뿐이엇다 疾風과가티 我爆擊隊의猛爆에 逃亡할사이도업시 大型機二機 小型機一機는 散散히粉碎되고 남은五十六型一機가 飛來하야 꼿雲間으로逃去하엿다 此日 我荒鷲의大集群은地上部隊의猛進과함께江北全野를制壓하엿다

江南地區全線서 敵陣을猛攻擊

【上海十九日發同盟】艦隊報道部十九日正午發表=昨日海軍江上艦艇及陸戰隊方面戰況은 如左進展되고잇는中이다 中支方面에서 海軍航空隊는 昨十八日襄陽을爆擊、多大한戰果를 거두外 地上部隊作戰에 呼應하야 江南地區敵全線到處에서 敵陣地를 攻擊 이에大損害를주엇다

海의荒鷲石龍猛爆

【香港十八日發同盟】廣東來電에依하면 十八日終日石龍을 爆擊 投下한爆彈은 ○○個를突破하고 支那軍의死傷은적어도二千에 達하리라한다

漢口政府機關 奧地撤退와AP報道

【紐育十八日發同盟】十八日紐育에達한 AP漢口電報는 漢口各政府機關의 奧地引退와 外人居留民의 避難에關하야 左와如히報하고잇다

支那軍當局은 今後當分 漢口에 잇스리라고 豪語하고잇스나 軍事機關을 爲始 政府各機關의 奧地引退는 그後益益 强化되고잇다 赤十字本部도 이미移轉을 開始하고 目下漢口에는 米國人百三十人을 爲始外人도 相當히 殘留하고잇스나 通常의 手段으로서는 벌써 避難할方策이업고 鐵道에依한 長沙方面에의 避難도 危險하다 一方 湘河도 目下顯著히 減水中인 關係로 航行이 困難하게되어 外人은 마침내 避難困難의 狀態에 陷하게되엿다

外廓의核心的要塞 牛頭山을猛攻中
黃石港總攻擊第二日

【石灰窰十九日發同盟】黃石港總攻擊第二日인 十九日、朝來 ○○部隊는 猛然進擊을 開始하야 黃石港市街及外廓要塞群으로向하야 限死的으로 퍼붓는 銃砲彈의集中砲火에 着着 戰果를 擴大中이다 또 海의荒鷲는 低雲의 不良한 天候에도 不拘하고 瞬時의餘暇도 주지안코轟爆 要塞를 攻擊하야 ○○의進出을 掩護하고잇다는바 戰鬪는 刻刻으로激烈化하고잇다

【石灰窰十九日發同盟】石灰窰를 陷하야 十數一營下旺溜에게된 ○○部隊는 十九日午前十一時 突然黃石港外廓要塞의核心 牛頭山에 猛攻擊을開始 黃石港의 側背에 多大한威脅을주고잇다

今日本紙四面

維新政府余氏被擊即死

【上海十八日發同盟】十七日午前三時半頃 虹口新亞호텔에서 維新政府實業部參事余大明氏(五二)가 就寢中 支那人怪漢에게 凶器로頭部 胸部等七個所에 斬傷을當하야 即死하엿다 同氏는 早稻田大學出身 中國聯合通信社社長을 兼任하야 그敏腕을떨치고잇섯다 그리고同日午後五時頃 上海共同租界 南京路角에서 維新政府稅局長邵識軍氏가 自動車로 通行中 怪漢三名에게 拳銃으로 狙擊當하얏스나 多幸히 自動車 防彈裝置가잇섯스므로 生命에는 關係가업섯다

八面鋒

◇南支에 上陸한 部隊、廣九線을 完全 遮斷。

◇歐洲에서 오는 軍需品이 香港에 山積될터이로군。

◇廣東마자 陷落되야 粤漢線이 遮斷되면 南方으로 오는 軍需品도 漢口에 못올形勢。

◇隴海、京漢兩線이 遮斷、廣九、粤漢兩線이 不通되면 漢口守備도 孤城落日。

◇그래도 오히려 抗戰을叫呼함은 愚拙、

◇워낙 地面이 넓은 支那라 全支那를 다 占領하랴면 相當한 時日을 걸릴지나、

◇蔣介石政權이 抗日을 持續하는限 重慶、昆明까지도 追及을 不辭할지니

◇事變의 終結 時期는 蔣介石의 心中을 안後 判斷할일?

◇獨逸 作曲家 번트氏 孫選手를 爲하야 五輪制覇의 交響樂을 演奏한다고。

◇運動과 藝術의 極致의 結合

休日氣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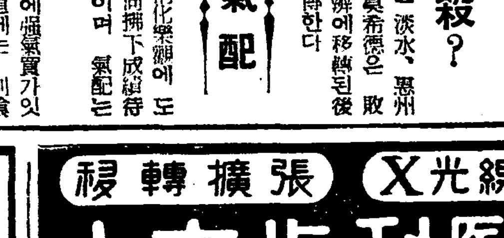
◇期米 擧下米消化樂觀에 도리어 頑强하나 尙擧下成續待로 高値는買躊躇이며 氣配는 不變

◇株式 戰局進展에强氣買가잇서 頑强하나 高値에는 利喰어速出하야 底意堅調에保合

大新 八六、三〇 鐘紡 一二〇、五〇
東新 一四四、二〇 滿重 七六、四〇

海外經濟 (十六日)

品目	價格	比較
스틸	六四弗四分三	一弗八分五高
아나콘다	四○弗八分一	四分一高
工業株卅種	一五二弗一○仙	一弗二九仙高
鐵道株廿種	三○弗六三仙	三○仙高
米棉 現物	八仙五五	不變
米棉 先物	七仙九九	二低
印棉 平均		三錢低
印棉 平均		三錢低
爲替 英米	四弗七六仙一六分九	一仙八分七高
爲替 米日	二七弗七九仙	二仙高
爲替 英日	一志二片	不變
紐育生糸 當限	一弗八○仙	三仙高
紐育生糸 先限	一弗七八仙	三仙二分一高
시카고小麥先物	六五仙	四分一低
倫敦 金塊	七磅六志二片	四片低
換算一匁	一五四○錢四厘八	三錢四厘五低
倫敦 銀塊	一九片一六分一	八分一高
紐育 銀塊	四二仙四分三	不變
倫敦 玖馬砂糖	五志四片	四分一低



合祀하護國英靈에 遙拜式嚴肅執行

今朝朝鮮神宮奉賛殿에二千餘軍官民參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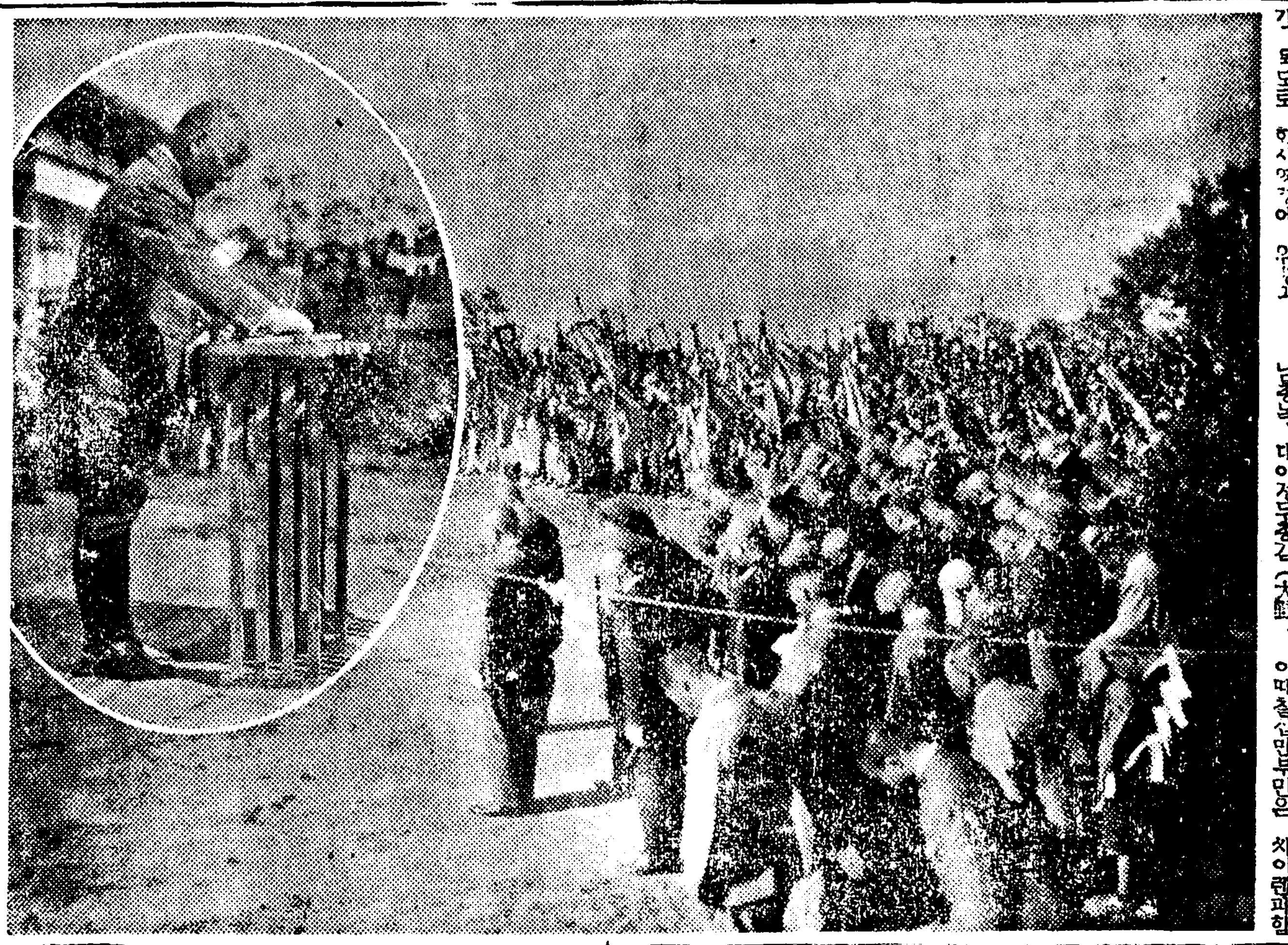
玉串奉奠、一分間默禱

동양영원의 평화를 위하야 장렬무쌍한 전사(戰死)하야 호국(護國)의 영령이된 일만삼천일백삼십사구를 정국신사(靖國神社)에 합사(合祀)하야 혁혁한 무훈을 청사(靑史)에 영원히 기록하는 정국신사임시대제 를제일인 십구일 오전열시십오분 황공하옵시게도 천황폐하께압서는 구단(九段) 동신사에 행행(行幸)、친히 신전(神殿)에 어배례(御拜禮)하옵시엇고 가튼시각 전국민은 일분간 묵도로 한사영령에 위령과 감사를 밧드렷다

이날 대화신궁의 병참기지(兵站基地)로서 중대한사명을 수행하고잇는 조선에서도 가튼시각 반도각곳에서 일분간 묵도로서 구단사두(九段社頭)에 새로히신진(神鎭)한 호국영령에 대하야 멀리감사와감격을 밧드러 총후의인식을 새로히하게한바이엇는데 수도경성에서는 오전열시부터 조선신궁봉찬전(奉賛殿)앞광장에서 요배식(遙拜式)을 엄숙히집행하엿다

남총독、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을 비롯하야 총독부각국장、감사경기도지사(甘蔗知事)、좌백경성부윤(佐伯府尹)、제이십사단장본소장(岡本少將)이하군관민、청년단원、국방、애국부인회원이천이백명이 참열한가운데수발(修祓)한다음 아지화궁사(阿知和宮司)가 요배사(遙拜詞)를 주상하고 옥관봉전(玉串奉奠)이 잇슨다음 열시십오분을 기하야 일분간묵도를 올리고 식을마첫다。

이때참집만부민은 차이렌과함께 멀리영령에 대하야 묵도를 올렷다



(사진은 요배식장의 일분간 묵도와 남총독의옥관봉전광경)

七十萬府民의守護神 神輿今日還幸

京城神社恒例大祭嚴肅終了

십팔일 하룻밤을 용산어려소(御旅所)에서 보내압신 칠십만 경성부민의 수호신(守護神)을맛은대제(恒例大祭)제이일인 십구일 오전아홉시 다시 도어(渡御)의 길에 올르시사 영정(榮町)원정(元町)마포 아현(阿峴)을 거처 서대문전차길을지나 경성부압에 착어하압시와 두시간동안 머무르신다음 오후두시 다시그곳을 떠나시사 창덕궁앞을지나 종로를거처 신당정(新堂町)까지가섯다가 오후다섯시 신사로환행(還幸)하압시엇다 이로써 전시에두번째맛는 경성신사의항례 대제는 엄숙긴장한가운데 무사히마치엇다

(사진은경성부에머므르신신여)

戰歿軍人子弟에게 子弟章制定配付

京畿道에一七四〇名

경기도군사후원연맹에서는 사변이래 제일선 장병에게 보내는 위문품모집 출정유지가족의 위문과부조 전상군인의 위문등 여러가지로 총후후원에 꾸준히 활약해왓섯는데 이번에 다시출정전몰군인자제장(子弟章)을 제정하야 불일내로 도내에잇는일천칠백사십명의 전몰군인자제에게 난호아주기로 되엿다한다 이 자제장은 얼만전 육군성에서 제정한 상이군인 휘장과가튼 의미에서 나라를위해서 목숨을바친 황군장병의 자제에게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에서 제정된것이다

春川中學校 一部生徒도動搖

【春川支局電話】수일전 춘천중학교(春川中學)생도일곱명이출입을금하는음식집에들어갓다가들켜그중 다섯명만은십사일부터십팔일까지 닷세동안 정학을마젓다 이것을분개한 일부생도들은 십팔일밤 시외모처에모혀 불온한기세를 올니기시작한것을 경찰이탐지하고 십구일 일곱아홉명의 주모된생도를 불러다가 여러가지로 설유하고잇는데 귀추가 자못주목된다고한다

徽慶町에서 列車殺人

십구일아침여섯시 십오분경부내 휘경정(徽慶町) 일백팔십구번지압 경원선 철도길목 부근에서 기차에 치여죽은듯한신원불명의 조선인 남자의시체하나가 발견되엿다는데 보고를바든 동대문서에서는 곳개원을 파견

徐南天女史 烈女門建立

【榮山浦】라주 동강면 인동 서남천(羅州洞江面仁洞徐南天)(*)녀사는 십칠팔세시에 동동 금성정씨문(同洞錦城鄭氏門)에 입가(入嫁)하게 되자마자 그남편은 무서운 병에걸려일반은 기피함를 불고하고 어린녀사는 그남편의 병차리에전력을다하야 왓스나 효마를엇지못하고 정씨는 녀사의 이십세시 이세상을떠나게 되엿다 그러나서남천 녀사는 그꼿다운 청춘을혼저보내는열부(烈婦)의절을 직혀왓슴으로 정씨문중 급면민(鄭氏門中及面民)은 이에 크게 감동되여 삼천원의 거금을 드려열녀문급열녀비(烈女門及烈女碑)를세윗는데 불원한장래에 제막식까지 거행하리라한다

徽新校一部 生徒動搖

시내연지정 경신학교(儆新學校)사학년갑을조팔십여명 생도들이 사소한감정으로 작십팔일부터동요되여 학교당국에 진정서를제출하고 금십구일은 공휴일임에도 오전중에 사학년생도들이학교에집합하야 맹휴를 계획하려고하다가 동대문서원에게진압되여 해산되엿는데 그주모자라고인정하는 사학년을조 임의준(林翰準)은 학교당국으로부터 무기정학처분을 내리엿는데 요구조건은 모교원배척이라한다

"體育研究會"新設

新日本體育建設計畫

注目끄는鹽原學務局長의抱負

반도체육계의 전환기는 이윽고 닥처왓다 장기건설에 가장 필요한것은 인적재원(人的資源)의 강화라는 못토ー를 세우고 염원학무국장(鹽原學務局長)은면저체육방면에잇서 신일본의 체육건설을 위하야 장정의건강과 산여인의 건강에 큰목표를두고 더욱이 농촌체육에도 주력을두고 체육만이아니라 정신운동과 연결시켜 새로운 체육운동을이르키고저 불원에 체육계의권위를 망라하야 관민합동의 체육연구회 또는 비판회를 조직할터이라한다

종래의스포ー츠는흥미본위에호르는감이업지안헛스며 경기종목이모두서양인의것을 채용하야온것을 아프로 일층혁신하야일본인의체질에맛는 독특한종목을연구하야 이를 대중에게보급발전시켜서 신일본 체육건설에매진할터이라는데 명년부터 조선신궁봉찬체육대회에도 경기종목에 일대혁신을 볼모양이다

自動車와衝突 人力車夫慘死

십팔일오후 두시쯤되여 부내 신당정(新堂町)백칠번지 인력거군박명선(朴命宣)(⁂)이는 자전거를타고 욱정(旭町)이정목 유번지압을 지나다가 본정(本町)와충돌하야 빈사의 중상을 입어 부근병원에담어갓스나 십구일오전세시 드디여절명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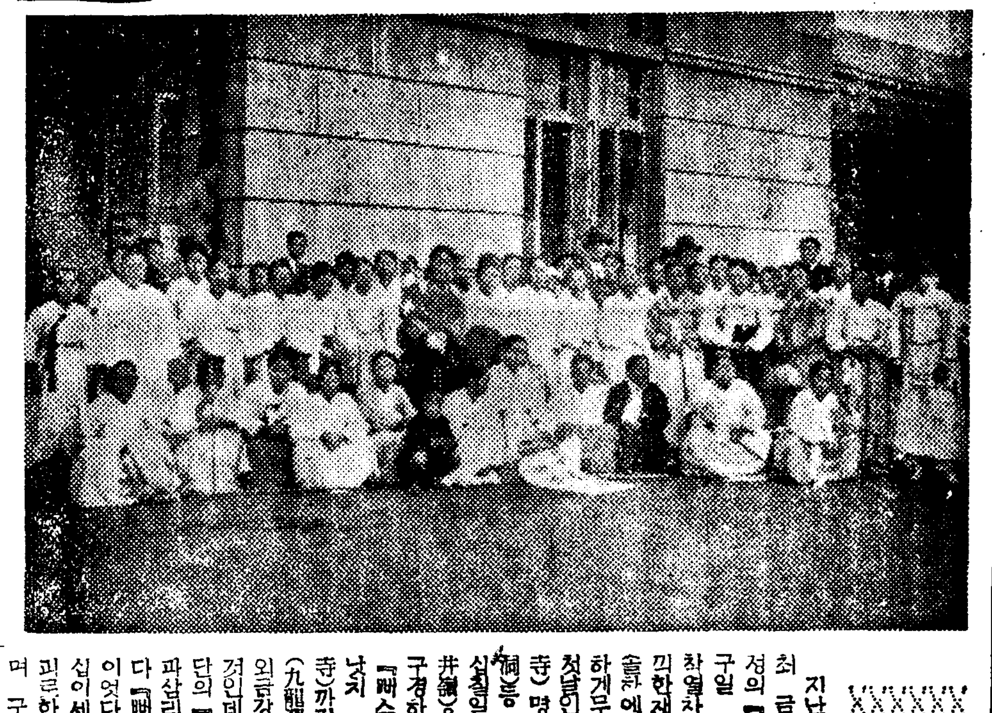
唐麵 製造都賣 釜山豆麵工場配給所 釜山府大橋通一ノ六二 電話一八二七番

防護團服色의乘客이 强盜로豹變、奪金

運轉手를短刀로脅迫코二十餘圓强奪逃走

昨日新堂町閭街에서發生!

방호단원의 차림을 차려입은 자동차승객이 강도로표변 단도로운전수를협박하고 소지금전부를 강탈도주하엿다ー경성신사예제로해서 장안이 떠들석하고잇는 어제밤열시반경 부내 현저정(峴底町)사십오번지의 삼십칠호 광희문(光熙門)밧시ー운전수 이용귀(李容貴)(⁂)가 손님을 태워다주고 빈차를 몰고 삼월(三越)백화점아페 이르럿슬지음 방호단 제복에 제모까지 바쳐쓴 약이십오륙세가량 되여보이는 조선인남자한명이 차를 멈추고 올너라더니 차가 신당정(新堂町)이백사십칠번지 오숙한 끝목에 다다르자 승객은돌연 강도로 표변 차를 멈추게한후 단도를 빼여들고 운전수를보고 나직한 그러나 저력잇는 목소리로 『돈을내노라 소리를치르면찌를테다!』라고 협박한후 운전수의 소지금이십원각수를 강탈해가지고 어둔밤을타서 어데론지 종적을 감추어버렷다한다 급보를 바든소관동대문서에는 즉시서장이하 전원을비상소집 신당정일대에 걸처서수사망을느리고 날이새도록 범인체포에 노력하엿스나 범인의 종적은아직도묘연하다



"안악네探勝路"를開拓

金剛山婦人探勝團一行今朝歸京

지난십오일밤차로떠난 본사주최 금강산부인탐승단일행은 예정의 『코ー스』를 다마치고 십구일 오전열시이십분 경성역착열차로 전원무사 금강산을만끽한채 한장원(元澤源)씨인솔하에 단원일동은 원기왕성하게무사히 도라왓다 그전피처럼인 십육일에는 장안사(長安寺) 명경대(明鏡臺) 만폭동(萬瀑洞)을 내금강을 전부 구경하고 십칠일에는 『빼스』로 온정리(溫井里)을 거쳐 만물상(萬物相)을 구경하엿스며 십팔일에는 역시 『빼스』로 해금강(海金剛)을낫낫치 구경한후 또 신계사(神溪寺)까지 『빼스』로 가서 구룡연(九龍淵)을 구경한다음 그날밤 외금강(外金剛)을 떠나 도라온것인데 이번 금강산 부인탐승단의 『코ー스』는 도보로는 팔십리가량을 걸엇슬뿐이요모다 『빼스』를 리용한것이 특색이엇다 그리고 단원중에는 칠십이세의로인이 꿋까지 조곰도 피로한 빗도엇시 탐승을하엿스며 구룡연까지 갓슬때 육십칠세의 부인네가 혼자만가는명그대로 비로봉(毘盧峰)에를 올라가겟다고 하야 그씩씩한 기운에 젊은안악네들도 놀날을 마지안헛섯다고한다

(사진은경성역에귀착한일행)

漁夫緊張으로 營業者等困境

【仁川】어장(漁場)이라면 술집만코 새악씨만코 불량자만키로 유명한곳이다 그리하야 어획기인 여름과 가을에는 각지로부터 모여드는 술장수、일명은들병장수들이 그수를 모를만치모여든다 이들은 제각금 배운재주를다하야 그무지한 배사람들의 주머니를 떨기에 가진아양을다떠는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몫과가려서 언의해를 물론하고 각어장은 번창하다 그리하야 금년도여전히 예전만여겨 덕적면울도와북리(德積面、蔚島、北里)에는 각처로부터모여든 색주가들이 진을치고 선원들을노리고잇섯스나 천만의외로한산하기짝이업다 그원인은 현하장기전시하에잇서서 농산어촌민의인식은 놀날만치되여 그전과달라 선원들은배에서 도모지상륙을아니하며 도상육을한다하더라도 한잔의술은고만두고한그릇의밥조차 사먹지를안허 일가한때를버려 세월을 지내겟는늑망은 수포로 도라가고 현재영업하다고하면서도 방을떠는 상태타는데 이에 대하야 부천군 박어업계원(朴漁業係員)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朴漁業係員談

우리관내의 어장인 울도(蔚島)와 북리(北里)에 출장하고 도라오지가 수일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심한것은 배사람들의 시국인식이야요 그전가트면 매일가티 술먹고차울하고 도박하고 한시를 못견딜만지 소란한데 금년은 일절 그런일이업고 술먹고 차몰하는사람들이 차저볼려야 볼수업슴니다 운운

趙澤元舞踊 歸國第一回公演

十一月에東京서開催

무용예술의 본고장파리(巴里)로부터 도라온 무용가 조택원(趙澤元)씨의 귀국제일회 공연회는 십일월팔일 오후일곱시동경 일비곡(日比谷)공회당에서열니게되엿다한다 프로는 일부와이부 두갈래로 난호여잇스나그중에서도 이날밤공연의 인끼를 한층더 놉게하고 잇는것은제일부로서 『승무의 인상』(僧舞의印象)『방아타령』『만스·꼬뮤ー ㄴ』『가사호접』(袈裟胡蝶)『검무』(劍舞)『조선해설아악』등 보가 조선색 농후한 향토무용으로 채여잇다는데 씨의 무용 특히 조선무용은 이미파리의일류무용비평가들사이에서도 절평이잇서 이날밤 공연의 인끼는 벌서부터 자못크다고한다

秋蠶繭도良好 富川郡의實況

【仁川】부천군(富川郡)의 금년 추잠견(秋蠶繭)공판성적은 예년에비하야 양호하다한다 그판매고는 별로히 늘지를안햇스나 그반면에 잠종배부를 유심매나출려서 배부하엿는대도 예년의판매고를 돌파하얏다하며 금년의 잠종을 감소시킨원인은 상목의 충재로인하야 뽕이괴 점부상태엿든관계라하며 추잠견의 공판고는 다음과갓다

總販賣高 一千一百二十七貫三百三十匁

代金 三千一百六十一圓二十九錢也

朝鮮神宮大會 榮譽의優勝者

第十四回朝鮮神宮奉賛體育大會는 지난四日부터 十六日까지連十五日間 京城運動場을 비롯하야 奬忠、京城府民코ー트(庭球)와大陸體育館(卓球)에서 盛大히擧行하엿바 來二十三日의 全朝鮮自轉車競技大會로써 大團圓을짓기로되엿는데 各種競技部門의榮冠을獲得한 團體와 個人選手를 列擧하면 다음과갓다

【拳鬪部】▲플라이級=梁政模(東拳)▲밴탐級=金善榮(靑拳)▲페더ー級=金明鎬(朝拳)▲라이트級=朴啓善(靑拳)▲웰터ー級=李敎鳳(靑拳)▲미들級=張偶興(東拳)

【蹴球部】▲中等部=普成中學▲專門部=世富蘭偲▲一般部=全普成專門

【重量擧】▲學生部=五十一瓩級…李彰水(徽文)◇五十四瓩級…李[illegible]◇五十七瓩級…崔相奭(靑學)◇[illegible]◇六十瓩級…金[illegible](徽文)◇六十七瓩半級…文[illegible](徽新)◇七十五瓩級…洪[illegible](徽新)◇八十二瓩半級…金炳[illegible](普專)▲一般部=五十一瓩…吳[illegible](徽新)◇五十四瓩級…金[illegible](體研)◇五十七瓩級…朴[illegible](東體)◇六十瓩級…南[illegible](升體)◇六十七瓩半級…[illegible](京俱)◇七十五瓩級…金成榮(京俱)◇八十二瓩半級…朴春山(體研)

【卓球部】▲女子個人戰=金[illegible](慶北高女)▲男子中等個人戰=金相熙(海州東中)▲男子一般部=全成鎬(總督府)▲國際式複式戰=金相[illegible] 李在雨組(京城)▲同單式=崔[illegible](培材中學)

【籠球部】▲女子中等部=淑明高女▲男子中等部=平壤二中▲大學高專部=延禧專門

【排球部】▲男子中等部=龍山中學▲女子中等部=第二高女▲大學高專部=普成專門▲女子一般部=京城女師人組▲男子一般部=遞信局

【軟式庭球部】▲男子大學高專部=延禧專門▲男子中等各道對抗=平安北道▲女子中等各道對抗=京畿道▲男子一般各道對抗=京城府▲女子中等選手權=下川、井上組(平壤高女)▲女子一般部=林[illegible]玉、姜[illegible]組(京城女師)▲男子一般選手權=洪承杰、李[illegible]組(京城)▲男子中等選手權=金成學、張在[illegible](養正中學)▲OB選手權=尾崎、淺野組(慶南)

【럭비ー】▲中等部=培材中學▲高專部=普成專門▲一般部=遞信局

【野球部】▲中等部=善隣商業▲高專部=京城高商▲一般部=全大邱

【軟式野球部】▲各道對抗=平南

【硬式庭球】▲一般複式=城野田[illegible] 中堅(京畿)▲同單式=[illegible](大邱)▲學生複式=大邱 柿木組(大邱)

【相撲部】▲少年部=木浦商業▲中等部個人戰=金[illegible](木商)▲[illegible]

【弓道】▲[illegible]▲專門部=京城[illegible]▲個人戰=吳[illegible] 一般部=京城 ◇個人戰=吳[illegible](京城)

【柔道部】▲各道對抗=京畿道▲高等部=水原高農▲中等部=京城商業

【劍道部】▲各道對抗=咸鏡南道▲專門部=大學豫科▲中等部=京城道徽

【馬術部】▲一般部=[illegible](咸南)▲各道對抗=咸鏡南道▲女子中等部=京城女實▲男子中等部=[illegible]南中學

伊太利의蹴球熱 年收入三百四十萬圓

【羅馬同盟】昨年度의 스포ー츠統計에 依하면 最近伊太利에서는世界의 蹴球覇權을 掌握한蹴球가大衆의 趣味에適合하얏는지 다른스포ー츠보다 斷然뛰어나게人氣를獨占하고잇는데 이에反하야 一時盛行던 골프는 寂寥하여진[illegible]지안코 蹴球는 年二千萬리라(邦貨約三百四十萬圓)를 벌는 收入을 보이고잇스며 골프는 겨우三萬리라(邦貨約二千九百圓)이다 그리고 自轉車競技는 年約二十九萬三千四百二十圓의 收入이잇는데 歐洲諸國에서는 競[illegible]에 [illegible]가는人들이 늘고잇다

李鮮吉五段勇 全日本柔道選士權準決勝에

第十八回大會는 十六日부터 東京市小石川水道町講道館에서열렷는데 朝鮮代表李鮮吉五段은一般成年前期에 잇서서 第一戰에東京代表藤澤五段을 물리치고準決勝戰에드러가 關西代表田中五段을對時케되엿스며 樋五段은專門壯年後期에 廣島代表永末五段을 이겨準決勝戰에 드러갓다

產米狀況視察 米穀課長來道

【慶南支社發】총독부 미곡과장(米穀課長)하반판(下飯坂)씨는이동기사(伊東技師)를대동하고 남조선의 산미개량실시상황(產米改良實施狀況)을 시찰코저 십구일 부산에 도착하야 [illegible] 일대를 시찰한뒤에、목포(木浦)에서 열릴 미곡대회에 참석하리라고하는데 일정은다음과갓다

十九日 釜山 金海 進永 南旨 靈山 馬山

二十日 馬山 咸安 晋州 河東(慶南道農務課長案內) 光陽 順天

二十一日 順川 寶城 長興 康津 靈岩 榮山浦 木浦

色鉛筆

요즈음『까소링』절약 때문에『빼스』배차가 줄어들어 과청회사 출퇴시간의『러슈아워』때에는 여간서 둥우지 안흐면『빼스』를 타볼수가업는 형편이다

▲요며츨전 도회를『빼스』정류장에서 어떤 조선옷을입은 인한분이 동소문(東小門)가는『빼스』를 기다리고잇섯는데▲원체『빼스』가 동안이 엄청나게뜨데다가 오는것마다 초만원이어서 젊은사람들처럼 밀으락 닥치락하지를못하고 이럭저럭삼십분이나 기두럿겟다▲이리해서 겨우 한자리를 비비고 어더타게 되엿는데 빤하게 안오로드러갈수 업는것을 차장이 연방 더 들어가라고 밀다시피 하면서 강요를하게되니까 ▲그노인의분통이 드디어 터저하는말이『차에 사람을태우는거요? 짐차에 짐을실는거요?』▲『까소링』절약이 소중한국책에서 나온거야 누가모르겟소만『빼스』의사명이 손님의편의를 위한것인바에야 어떠케하겟소▲절약도 분수나틈이지 무어던지 파부족(過不足)이란말이요 차장도 좀 더 친절히하고!

曆

十月二十日(木曜)陰八月二十七日 ▲干支乙酉▲日出 午前六時四十五分▲日南中 午後零時十八分 ▲日入 午後五時五十一分▲月出 午前三時十四分▲月入午後三時四十八分▲滿潮(仁川)午前二時五分午後二時四十五分

今日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音樂파이야기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各道자랑』▲同八時 唱劇調『新版春香歌』▲同八時三〇分 漫談野談『奇計』▲同九時 短簫獨奏 ▲九時十五分 謠曲『出師表』▲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뉴ー스氣象通報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北支那及北朝鮮地方으로부터 滿洲東部로 퍼지고 滿洲中部에는 弱한低氣壓이잇다 颱風은 琉球小笠原等海上에잇서 東北東으로 進行하고잇다 滿洲朝鮮은 秋晴의好日氣인데 日本關東地方은 흐리고 其他는 日氣가조타

豫報 今夜와 明日은晴

昨日最高 一八度七 〃最低 四五度八 十九日朝最低 五度八 〃正午 十七度六

太田胃散 藥效如神 四時常備의胃病良藥 東京太田信義藥房 各地藥店에서發賣

服藥의最適期！ 虛弱을하로밧비恢復합시다 效果 本位

只今으로부터 日氣가漸次로 寒冷해집니다。秋凉期로부터 冬寒期에亘한 모든疾病은 大槪呼吸器病으로부터始作되야 甚하게되면 肺炎 結核等의 重症으로惡化됩니다。

그것은體內에 비타민蓄積量이 減少됨을따러 身體의抵抗力이減弱되고 特히呼吸器粘膜이弱하게되여 感冒菌과結核菌이 侵犯하는것이므로 秋凉期인只今에 身體의抵抗力을强化하야 嚴冬에備하지안으면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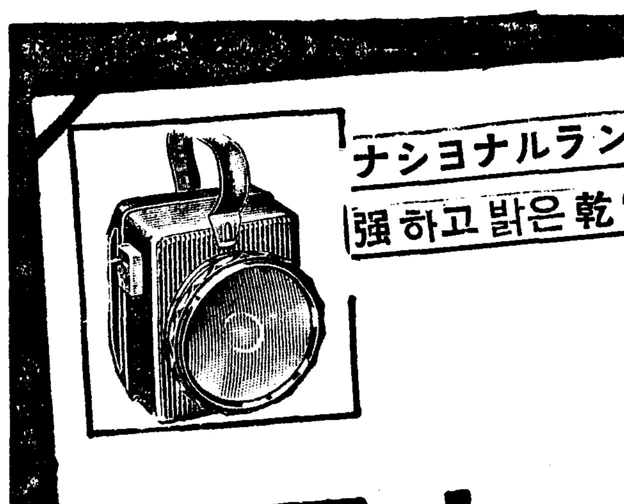
네온톤 (NEOTONE) 은 人體에絕對必要한비타민榮養素를供給할뿐아니라 結核菌을殺滅하는 有効成分이適當히含有되야 呼吸器疾患과 結核豫防에 特殊한作用이잇는外에 消化機能을活潑케하야 食慾을增進하며 身體를强壯케하는再建設的作用이卓越하므로 病弱한분은 勿論 누구나本劑로써 抵抗力을强化하야 病魔를未然에防止하시기바람니다。

適應症 (本劑를服用하실때는먼저醫師에게相議하야주십시요) 肺結核·神經衰弱·萎黃病·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肋膜炎 產前產後·急慢性氣管支加答兒·一般虛弱·榮養障碍·心臟疾患·病後恢復期

世界的 强壯劑 ネオトン

네오톤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上海

(全國有名藥房販賣) 包裝 小瓶 中瓶 大瓶



ナショナルランプ 强하고밝은乾電池

람푸는 乾電池

ナショナル乾電池

松下乾電池株式會社

書籍購入 二號各一部와 千部購入希望 丁目六七ノ七 漢城官報第一號 朝鮮官報第一號中 京城府明倫町三丁目 李遠雍

株式會社 滿鮮日報 京城府黃金町九七 京畿總支局準備事務所 電光二九六四

女外勤員採用 高女卒程度 自筆履歷書 寫眞及返信料切手一枚同封 廿五日까지 郵送 用途通知面談

採用 財界ノ重鎭住友ヲ選ベ 士ヲ求ム 新制度ノ優遇 住友生命支部內 京城黃金町一丁目 本部直轄部

朝報案內

豊信商會 京城東大門市場 電話光化門一八二六番 穀物貿易及委託賣買 吸收합니다

鐵道員養成講義錄 朝鮮及滿洲은每年 日本鐵道教育會

乳の出る藥 無代進呈 大阪市住吉區 榮養母乳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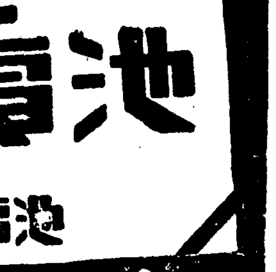
地方青少社員 大阪市住吉區 天賞堂本店

性病 尿の病 病理療養書 回春の悅樂 無代進呈 自療堂治療部

舶來入選現代刀匠の優秀作品 日本刀特價提供 實戰用軍刀 拵付日本刀 白鞘入大刀 今井商會刀劍部

藥種商講義錄

觀相四柱 春岡 裵相哲先生！ 科目及料金



廿五個面調査에도 要移住千七百戶
基本調査에 만三個年이 必要
難關重疊한江原道火田整理

【春川】강원도의 화전정리(火田整理)는십개년계획을 세우고 수년전부터 기본조사를하야 나려오는터이나 아직도 전체적조사도 끗이아니낫스며 금년봄에 위선급하다는 금강산철도연선(金剛山鐵道沿線)과 경춘가도연선(京春街道沿線)만은 풍치면보상 사미업다고하야 회양(淮陽)김화(金化)군의 팔백정보 춘천(春川)군의 오십정보만을 정리할따름이엿다

도내화전면적은 십만정보에달하며 호수도 칠만일천호를넘어전도인구의할사분을 점령하고잇다 그리고전기 기본조사만도 아프로 삼년간을 요하리라는데 작년도에 수립한수개년계획은조사한수자가 전혀맛지안허 다시 조사가끗나야 완전한 계획을세우게되리라고한다

위선풍치기타 관계로 아조급하다고 인정하는 춘천군외에십일개군중에서도 극히일부분적으로조사하야 발표한 수자에의하면 이십오개면(面) 백칠개동리(洞里)에 종화전경작면적이 오천오백칠십삼정, 화전민 호수가 칠천육십이호로 복기를이주(移住)를하는 호수가 일천칠백사십칠호이며 이주를요치안는 호수가 오천삼백십오호이다

경작면적중 화전을국전으로란들러 그대로 경작시킬 면적이 천팔백십정보 매경천보를화면적이 사백십오정보이다

조사한군별로보면 다음과갓다

	要移住戶數	不要移住戶數	耕作面積(町)
春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淮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旌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寧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橫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洪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華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伊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一、七四七	五、三一五	五、五七三

註 右十二個郡中에도 一部分으로 二十五個面百七個里에 關한數字

我田引水的解釋?
平南地主들農地令19條解釋을
總督府側重視코照會

【平南支社發】전번열리였든 평안남도 지주간담회석상에서 지주들은 논의피뽑기(稗拔)와조수(早收)를 이행하지안는 소작인에 대하여는『패덕의 행위』잇는 작인의 작권은 해제할수잇슴으로 이라는 농지령(農地令) 제십구조를 적용하여 작권을 이동할수잇다는것을 도당국의 양해하에협의한 일이잇는데 이것은그러치안허도 작권이동으로 인하여 여쟁의가 빈발하는 농촌에 일층쟁의를 크게하는것이 아닐가하여 그법의적용의 타당성(妥當性)여부가 식자간에 문제되엿든바 파면총독부에서도 문제중대시하고 이는농지령운용상중대 사항이라하야 평안남도에대하여 그사정을 조회하여왓다고하는바 아모로 어떠케귀결될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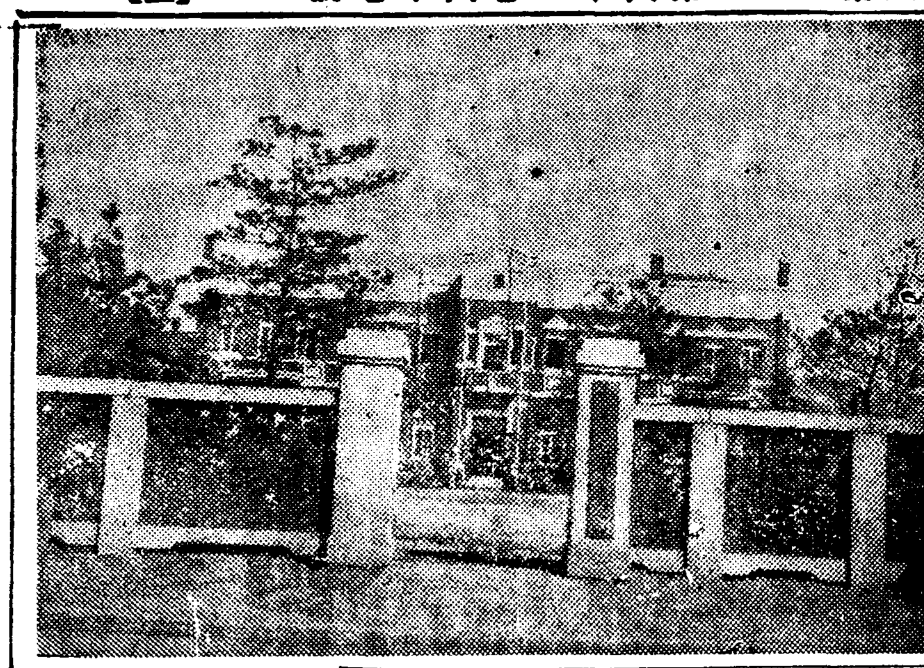
嚴冬節의跫音
各地方에薄氷降霜

【淸津】지난십사일부터 함북일대의 기온은 갑자기 내리기시작하야 십육일아츰에 이르러서는 가장심하야 나남지방에도 엷은어름을 보게되얏다 지난번 관모련봉(冠帽連峰)에 백설이나려쌔인것도 예년에 비하면 삼주일이나 빨럿지만 이번어름은것도 역시한달 각가히 예년보다 빨리보게되얏다 집을잃고 먹을것을 빼앗긴수해이재지(罹災地)의 가련한 정황은 겨울의 발자최를 드르면서부터한층더 비참하여가고잇다

【新義州】신의주지방일대는수일내 기온이 급하하야갑자기 동절의 준비를 하리만큼하엿는바 서리와 첫어름을 보게되얏다 서리는 작년에 비하야십팔일 평년에비하야 십사일떠러저오나 어름은 작년과 가른데 평년에 비하야 하루빠르다

【廣梁灣】평남용강(龍岡)지방에서 지난십삼일 가을비가 며칠을나리더니 비를뒤따라찬바람이 계속하야 삼일간이나 불고 지난십륙일새벽에는 온도가섭씨(攝氏)구도로 강하하드니 마침내 첫어름을보이며 벌서겨울소식을전하는데 초미은작년에 비하야 이십일이나 이르다고한다

【舍人】평남 순천군 사인지방에는 지난십육일아침 드듸여 어처어름이 어럿다 그리고『서리』도 금년처음으로 닥쳐나렷는바 이것을 작년에비하면약 십일간이나 느진편이다



新興國民高等校落成
開校、竣功式盛大擧行

【安東縣】수년전부터 숙망중에잇든 안동상업학교는 십만원의기부금이 조성되여 금춘에개교하고 교실이부족하여 증축중이든바 최근전부준공낙성되엿스므로 지난십일오전십시에 동교에서 개교식과 낙성식을 관민다수명의 참석하에 성대히 거행하엿다는데 운동장과 교실이완전히 준비되여 재안동포자제의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손색이업시되엿다한다 (사진은 낙성된 신흥국민 고등학교)

一小隊의竊盜團
蔚山、釜山等地로連絡犯行中
釜山署員十七名打盡

【慶南支社發】부내대신정(大新町) 전과이범구학이(具鶴伊)(二?) 외 십륙명은 절도단을 조직하고부산을 중심으로 울산(蔚山) 양산(梁山) 김해(金海) 밀양(密陽)등지에 련락하는자를두어 자전차 금속품을 절취하야 리레식으로서 부산에서 절취한물품은 울산 밀양등지에 가저다가팔고 김해 양산등지에서 절취한것은 부산에서파러 사다가 지난십칠일오후열한시경에 부내 남빈정(南濱町)에서전기주범구가 부산서원에게 체포되자 외십륙명을 일망타진하엿다는데 이절도단은 작년봄에 조직되여 지금까지 계속 범행을하여 오든것이라고하며 그 피해액은 현재까지 취조에 나타난것만이 오천여원이라고하는데 금후조사에따라 얼마나나타날지 알수업다한다

災地咸北地方에
蔬菜飢饉尤甚

【咸北支社發】겨울철이 닥처오는 함경북도 지방요지의제일은 두통거리에 소채기근(蔬菜飢饉)에 따르는 김장걱정과 신탄기근(薪炭飢饉)에 따르는아궁이단속의 두가지가 잇다그중에도 걱정되는것은 소채의 결핍인데 지난번 홍수로인하야 포전이란 포전은 전부흘러가버렷고다시 파종하엿스나 시기가이미늦어서 절망된때문이다 지금김장때를 압두고 무와배채시세는 날로등등하야 작년가트면 배채한폭에 극상품으로칠전내지 팔전 가든것이 이번에서 품질도 조치못한것을 한폭에 십륙칠전의고까를부르고잇다 이가튼시세는 일즉이 보지못한고까이나 멀리강원도(江原道) 방면에서 드러오는 약간의공급만으로 함북지방을 배급해주업는때문이라한다 각가정에서는 김장철을 압두고 공황이 날로심각하야가고잇다

寧遠罹災民出發
百戶가各炭坑으로

【平南支社發】평안남도에서는영원(寧遠)이재민중 이백팔십호를 양강 라흥등지로 이주시킬계획을 세워잇스나 이재민들의향토에대한 애착심과 근거업는억선전에 의하야 얼마전 강서동척농장에 십오호가 이주하엿슬뿐 계획은 착절되여 버릴형편에 어르럿스므로 수일전 삼길(三吉)사회과장이 직접 현지에출장하여 지방관청과 협력활동한결과 위선 백호 사백오십명이 십구일에 안주(安州)탄광 강동(江東)탄광 귀성염전(貴城鹽田)등지로 향하여 출발하기로되엿다고하며 월말까지에는 계획전부를 달성하게 되리라고한다

南朝鮮各地視察
本報瑞山支局主催

【瑞山】본사서산지국의 번영회의 하나인 상공시찰단은 지난 십오일에출발하야 남조선각지를 일일이시찰하고 십구일에 도라오게되엿는데 시찰한곳은다음과갓다고하며 단원은열한명이엿다한다

一、視察個所 鎭海 俗離山 同州 大邱 慶州 馬山 晉州 釜山 蔚山 南原 全州 扶餘等

死刑求刑
牛商殺害犯에
大邱地方法院에서

【慶北支社發】지난오월경북선산(善山)군하 강도살인사건의 피고 선산군장천면하장동(善山郡長川面下場洞)농업 김성도(金聖敎)(三?)에대한 제일심공판은 지난십사일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서 주전(舟田)재판장 대정(大町)검사관여로 개정되엿든

名唱大會大盛況
本報全南支社主催로

【全南支社發】기보=본보전남지사가주최한 명창대회는 예정과가티 십륙일과십칠일 양일간에광주극장에서 개최하엿든바 출연자측으로 조선성악계의 기숙이동백 오태석 정남희(李東伯, 吳太石, 丁南希)등 제씨를 필두로 김소희 조농옥 임소향(金素姬, 趙弄玉, 林小香)등 여류가수와 광주권번(光州券番)소속 예기총출동으로 종전에 보지못하든 호화스러운 무대장면과 연기를 보여주엇는데 이일간에이르러 본보애독자급 일반가족에게 위안의의미로써무료관람케 하엿던바 연이틀간의 관람객은 초만원을이루엇섯는데 주최자측으로써는 직접간접으로 감사를마지안이하는바이라한다

載寧明信中學
增級認可?

【海州】기보=재령 명신중학교(載寧明信中學校)는 현재오학급

鎭南浦上水道
明春着工豫定

【鎭南浦】진남포상수도(上水道)를 확장하기위하야 저간일백십칠만원의 기채인가를어더 진남포부 신수원지인 용강군삼화면(龍岡郡三和面)홍보지측량에 착수중 그간삼랑주민(住民)들의반대로 일시 설계측량을 중지하고 지금까지지내오던바 반대하던주민들도 지금에와서는 충분히 이해하게되엿스므로 진남포부에서는 중지하엿든 설계측량을 재차 착수할예정이라하며 순조로 설계측량이 진보되게되면결빙기를 이용하여 일체설계를완료한후 명춘해빙기를 당하여곳공사에 착수할예정으로 일반은 본격적 공사착수를기대하고잇다한다

襄陽能仁幼稚園
秋季運動會盛況

【襄陽】양양읍내에 단하나인능인유치원(能仁幼稚園)에서는 지난십칠일 동소학교(東小學校)운동장에서 제이회 추계운동회를 개최한바 십여일을두고 청렴한 일기에 원아들의 활발전진한운동은 일반관중을 열광케 하엿다고한다

黑林江堤防修築
松堂里民들連署陳情

【咸南支社發】함주군하기천면송당리(咸州郡下岐川面松堂里)주민대표 두후경(杜厚慶)외 오십팔명은 연서로함남도 도토목과에대하야 흑림강(黑林江)의 제방수축을 진정하얏다 그내용은 이번수해때에 룡암교(龍巖橋)와 신흥철도의철교가 오정된 관계로 그다리가방천에부드처서 결궤되엿든데 전답의오할이상전멸되엿스며 지금도 물이조금만 불어지면 이결궤된 방천을부러 인가에까지 물이 흘러나와서 피해가잇스니 하로라도 속히 이제방을 복구하야 주민을 안도케하야 달라는것이다

江西儒林臨時總會

【江西】강서유림회에서는 지난 십오일대성전(大成殿)에서 회장 오희철(吳熙轍)씨사회로동회의원 삼십오명이 회합하야 국민선서를 제창한후 능전참봉후보자선거(陵殿參奉候補者選擧)를 지부장의 립시총회가 잇섯는데 『향거요배』를 위지하야 에 들어가 무기명식투표를 하엿든바 최다점인 이례교(李禮敎)씨가 피임되엿다한다 그리고 오후세시경에 폐회하엿다

同德小校開校
部落民의血汗結晶

【咸北支社發】청진부동해안(東海岸)에서무산아동의 교육을목표사마 오랜역사를 가진 동덕회원(同德會員)이 사립소학교(私立小學校)로 승격하야 지난십일에 면예로운 개교식(開校式)을 거행하엿다 동교는창립이래 이십유여년간 구석지고 궁벽한 곳에서도 꾸준히 역사를 계속하야 오늘의 사립소학교에 이르기까지 가진간난신고를 거듭다가 부락민전체의 피와땀으로된 귀여운 존재요 동시에 지금까지 원장나상신(羅尙信)씨의 공헌도 사회전반의 치하를 밧고잇다 동교에서는 개교식날을 성대히 마치하기위하야 식이끗난뒤에 기렴운동회를 개최하얏다 [illegible] 고한다

照明彈

벌써 각처에 서리가 나리고 어름이 어럿다고

◇

빈곤한 우리네살림에 겨울은 언제나 괴로운때

◇

금년은 연흉에·폭우로 각종물가가 껑충껑충 뛰고잇스니 더욱이

◇

특히 관북과 평남일대수재지 재민들의 파동해이여며

頭痛에 テリーン(테-린)

어째서굉장히速히낫는가 効力이速한頭痛專門藥이科學的으로配合되여잇는까닭입니다

優勝劣敗가 明확하게되는世上이며 生存競爭이심한 이社會입니다마는 그로할미아마 너머도專務家는 精神을 過勞하야 고통하고 學生들은 過度의工夫로써 心身을 피곤케하며 社交場에 出入하시는 紳士들은 宿醉로 피로하시고 게시니 이런때에 腰痛한 頭腦를써 明朗하게 回復식혀주며 記憶力을 똑똑하게하여주는『포켓트·메드신』인『테-린』을 복용하여주시면 그러케심하게 머리가무겁든것과 두통 현기증 피곤함이 곳 나허서 活氣에넘치는 健康體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本劑가 우리東洋人의體質에 꼭 마즈며 더구나 臨床的實驗을 거듭하야 顯著한효험을엇게되자 비로소 世上에 提供한藥인만큼 그가티 的確한 効果가잇는바이오며 下記와가튼 증세에 卓越한 効驗을 가지고잇는 强心作用을가진 腦神經專門藥입니다

테-린의効能

神經衰弱 心身이피로되기쉽고 記憶力이減退되며 머리가 아퍼서 고민하실때

부인병 늘머리가무겁고 氣分이 조치못하며 편두통 히스테리를 아르실때

不眠症 學生들의試驗工夫 事務의繁雜으로 精神이 過勞하야 不眠症에걸려서 머리가무겁고 아프실때

船車의멀미 기차 전차(배)멀미를 하실때의 두통현기증과 吐氣는

眩暈 현기증이나고 氣分이 조치못하실때

宿醉 酒酣또는過度의飮酒로 가슴이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우실때

감기 감기에걸녀서 두통이심하실때

心臟衰弱 動悸(心臟의 鼓動)가 급할때에 卓越한 効果가 잇습니다

以上과가튼 증세로인하야 생기는頭痛 偏頭痛 머리가 무겁고 울리는 데 특효가잇습니다

定價

二包入	金拾錢
四包入	金貳拾錢
七包入	金參拾錢
十三包入	金五十錢
二十八包入	金壹圓
六十包入	金貳圓
百六十二包入	金五圓
三百卅五包入	金拾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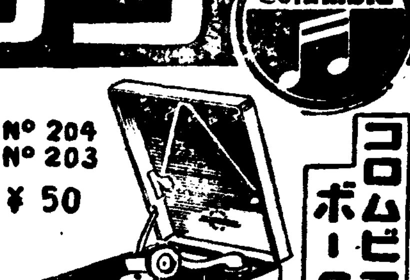
東京市小石川區武島町三三 製造發賣元 株式會社 中村信治商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朝鮮總代理店 新井藥房

全鮮의藥店、百貨店에서販賣하고잇습니다

コロムビア蓄音器

絶對優秀のコロムビアを 蓄音器・電蓄の御求めは



コロムビアポータブル No 204 No 203 ¥50

卓上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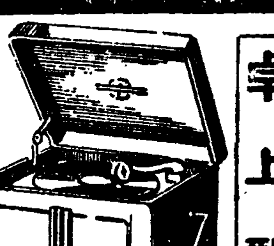
二三〇号……三〇円

五六号……三五円

二五〇号……六〇円

二一二号・二一三号・二一四号……七七円

二二〇号・二二一号・二二二号……一〇五円



NO 117 ¥110

電氣蓄音器

四二〇号・四二一号……五〇円

四五二号・四五三号……六〇円

四六〇号……八五円

四七〇号……九〇円

NO.301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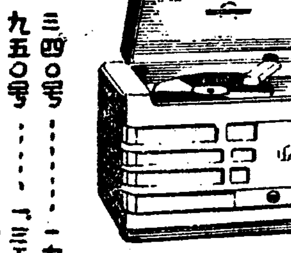
三一〇号……一六五円

電氣蓄音器 ラヂオ兼用

三四〇号……一九〇円

九五〇号……二三五円

九五〇号特別型 一四五〇円



NO 330 ¥215

京城鍾路 山口樂器店鍾路支店 電光③〇〇四八 振替京城二二七六六

清血排毒強心劑 海草精

日本政府 專賣登錄

適應症 腎臟病、梅毒疾患、婦人病、胎毒、心臟病、急性慢性ロイマチス關節炎、神經痛、喘息、神經衰弱、皮風、咽喉疾、頭瘡、腦溢血、中風、內腫、痰腫、動脈硬化症、半身不遂

피를맑게하고 여러가지독을업새면 만병은스스로낫는다 이로곳 해초정의위력 한번효력을시험하라……

一瓶(一個月分)二圓九拾錢

京城府鍾路六丁目二六七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 振京二三〇九八番 電光 四〇六九番

說明書進呈

檢眼無料 (學生限)

檢眼於本院眼科

◇檢眼◇ 眼科醫學博士崔先生科長先生擔任下의 最新精巧한機械를裝備한檢眼室에서正確히視力을檢査하야드립니다

◇眼鏡◇ 長久한歷史를가진三十餘年間의熟練한技術과精巧한機械를完備한鏡部工場에서正確히製造하야드립니다

京城驛前 セブランス病院

セブランス眼鏡部

無効返金 別府淋藥

世界一의 溫泉都로有名한 別府溫泉에서만드는 岩里家의 別府淋藥은淋病 帶下에異常한效力이잇서서 아모리頑固한淋疾이라고 服藥二三日이면 膿과痛症이업서지고七日이면淋菌을 死滅시켜서全治케함 詳細는藥書로申込하는대로 贈呈

集治療法無代進呈함

藥價 試用 二圓 急性用 三圓 慢性用 五圓 十圓 ▲藥書、治療法無代進呈

定價一圓ネオサル銀 無代進呈 正價一圓無代添付함 但內服別府淋藥사시는분에限함 直接患部에滲透吸收殺菌하는ネオサル銀尿道坐藥 一週間分及淋滌器

溫泉を含む 別府皮膚藥

本舖 別府市濱脇 岩里天然堂 振替下關八九四〇番

別府淋藥責任專賣所

京城黃金町四 代理店 マルミヤ南海堂

京城 特約店 京城鍾路二丁目 白楊堂藥房 同 黃金町一丁目四 永昌堂藥局 同 本町三丁目 天命堂藥房 同 五丁目五二 伊東大生堂 同 元町一丁目 イロハ藥品商會 同 二九 野並藥局 同 師範學校前 三浦回生堂藥房 同 旭町一丁目三九 有誠堂藥局 同 大門通一丁目 アサヒ藥局 同 古市町四三ノ三六 富士屋藥局 日ノ出藥局

仁川府宮町 江原道長箭港 大田本町二 元山府本町三ノ大 上洞九〇 南村洞 咸南利原邑內通 利原郡庶湖津 同成州郡興南邑九龍里 西湖津驛前 成鏡線興南驛前 [illegible]

松尾藥局 小林藥局 元山藥房 岩坪善吉 山口藥房 元興堂藥房 金元輔藥房 元春堂藥房 封榮堂藥房 南鴻藥業部 永井藥房 叔本藥店

成興雲興里片倉前 同 軍營通二丁目 同 大和町三丁目 成北鏡城郡上三峰市本通 日斗面古茂山 羅津本町 羅南生駒町 同 旭町一丁目 會寧本町 永安 [illegible]

鶴井ハルヱ 長崎藥局 木シ藥局 小藤藥店 大山藥房 加賀商會出張所 生越藥店 東京堂藥局 園田藥房 喜榮堂藥房 井上藥房 稻垣日本堂藥房 田中秀一藥房 喜榮堂藥房本店

ウテナ粉白粉

何故

가루粉의粒子가너머자라도못쓰는가

● 가루粉의粒子는 너머 굵거도못쓰지만、또너머 잘며는 氣孔이나 毛穴을密塞하야 도리혀 살결을 거칠게하므로 粒子가 日本人의살결에 꼭 適合한 ウテナ가루粉을 選擇해주십시요。

● ウテナ가루粉은 그밖게 新工夫가잇스며特殊한 美容成分이 配合해잇스므로 곱에머거서 바탕을 살리고 놀랍게오래갑니다。 그리고 鮮麗한色調는 가을에適合하고 清新한化粧美를 發揮하며 潑剌한個性美를 살려줍니다。

近代的明朗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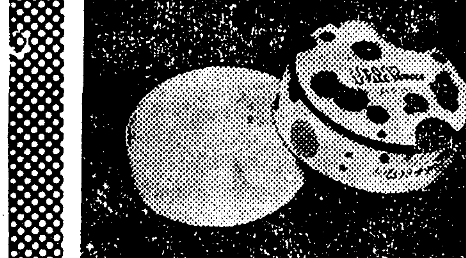
白色・肌色・濃肌

健康・ブルン

ナチュレル

オークル一・二號

正價・三五錢、六十錢



日本人의살에 最適인가루粉

13.10-3F

海印寺記 (下)

—그境內史蹟의片考—

方鍾鉉

大方廣佛에 들어 三千餘首의 實物을 求取하고 念誦된 二千餘首의 石窟經을 만들어 울라 가면 國寶로 指定된 一個의 寶物을 對하게된다.

나는 여기서 大藏經에 關한 內容을 說明하고저 하지 안코 爲先 그와가티 巨大無二한 寶典이 어떠케 開刊케되엿는가를 잠간 차저보려고한다.

海印寺留鎭八萬大藏經開刊因由를 按하면

李居仁이란사람은 本來陝川人인데 일즉 里胥가되어 大中王戊秋에 王租를 聚斂에 催促코저 나가다가 저물게야 집으로도라오더니 路上에서 한狗兒를拾得하야보니 그눈이 三目이러라 가지고 집으로 도라와보매 그形狀이 獅子와갓고 凡庸한 물건갓지안아서 하루에 一食을하고 主人에게 甚히 殷勤하야 拜送入迎을 五里나하더니 三年되는秋에 이르러 이狗子가 아무病도 업시 안저서 해를 처다보고 죽어버리는지라 그어롭해 冬에는 居仁이 亦是 病死하엿다.

居仁이 死後 冥府로 드러가서 한王을 만나니 나려는 三眼이 分明하고 머리에는 五冠을 썻스며 左右에는 烏冠朱服의 從官이 羅列되어잇는데 이 三目王이 居仁을 보자마자 堂에 내려 손을 잡으며 하는말이 主人이 엇지 이땅에까지오시나요하며 自己가 三年間을 主人宅에 議居하야 큰恩惠를 蒙하엿노라하고 若此若此히 하라는行此을 핫고 使者를 딸라 冥府에 들어가서 閻王이 네가 人間에서 무슨因緣을 지엇느냐하거늘 居仁은 三目王의 所示대로 法王의 至寶함을 듯고 將次刊板盡布하고저하다가 未遂하엿다고 對答하엿다 閻王은 곳 獄官을 命하야 門外까지 護而拜送하므로 居仁은 오다가 三目王을 만나니 歸家하여서는 八萬大藏經功德을 表現하야 官印을 어더두고 엿스라하는지라 居仁은 蘇生되어 功德文을 作하야 官印을 적어 다니엇더니 어떤날에 王女(公主)가 兄病가 同時에 行役에걸리어 父王께 告하기를 大藏經化主를許하여 달라하거늘 王이 곳 國門下에 差送하니 公主가 보고 京都로 보내매 居仁이 闕中에 當到하니 陝州太守는 어미 그일을 아는지라 居仁을 불러서 하는말이 나는 三目鬼王이라 君을 더부러 相約한일이 有하야 왓노라하며 그鬼王게 自初之終을 이에기하야 許諾을 어더서 內外良工을 召集하야 巨濟島에서 板刊하야 伽倻山海印寺로 運搬하여서 오늘날까지 傳해온다고 記錄되어잇다.

이大藏經은 그刊行된 年代가 高麗高宗王二十四年에 起工하야 同三十八年辛亥에 竣工되엿다. 이經은 一千五百十二部六千七百九十一卷이 高麗國刊板이니 木板數가 八萬一千二百五十八枚로 되어잇다.

이와가티 엄청나게 만흔板木을 刊行하는데 잇서서 그材料의 選擇이며 그全文의 校正이며 그板木의 裝飾뿐이 얼마나 우리로하여금 古人의 그正確함과 그精巧함에 驚歎케 하는바 잇는지 몰은다 그實로 古人의 材料를 ... 그時代에서 일우워진 입을 우리는 어떠한點에서 할수잇다.

어떠한板木이 排列의 形態이며 어떠한 構造며 또 오랜時日을 經한 그板木의 現狀에 關하야는 多少 細密한 說明이 必要가 잇스며 特히 그印出에 잇서서는 巨大한 費用을 要하는바도 잇고 여러가지 經驗도 必要한것이므로 여기서는 이에 說明을 略하기로하지안을수업다.

昨年十月 바루이때에 나는 이八萬大藏經을 印刷하기 爲하야 規模가 크고 山水도 조코 景槪도 絕한 이海印寺에 一個月餘를 머므는 幸을 가지엿던 일이 잇는만큼 大藏經印板에 關한 多少 經驗한바도 잇스나 紙面의 約束도 잇스므로 簡單無序하나마 이것으로 滿一年된 오늘에 回顧하여 海印寺의 勝景이며 親切하든 옛친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와는 特히 因緣이 기픈 天下大寶인 이八萬大藏經이 언제나 千秋萬代에 더욱 빗나주기를 빌어마지안는바이다

學藝

知性問題와 휴매니즘

—三十年代인테리겐챠의行程—

⑥ 尹圭涉

勿論 筆者는金午星氏의『知性人』規定에 그대로 左袒하는것도 아니며 더욱이 知性人과行動人의 對立的見地에는 反對하지안흘수업는것이나 知性과行動問題를 如何히하야서라도 한곳에 結着시키지안코는 現代휴매니스트들의 立場으로서 배겨낼수업다는데 만흔示唆가 잇다고본다.

휴매니즘의立場은 元來 歷史的立場이다. 同時에 歷史的立場은 곳 生産의立場이오 行爲의立場인것이다. 여기에 오늘의知性問題가 휴매니즘立場에서 論議하게될제 行爲의 立場을 떠날수업게되는契機가잇는것이다.

우리는 行爲하므로써 알게되는것이며 人間의 行動을 媒介로하야서만이 知性은 發展하게되는것이다. 오늘의 인테리겐챠는 時代가 아무리惡化할지라도 이가튼 行爲의 立場을 떠나서는 絕對로救濟될길이업는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從來에잇서서 行爲에對한 하나의 傳說的觀念을 가지고잇다.

그것은 한때 치열하엿든 科學的思潮의 餘波인지모르나 우리는 行爲라든가 實踐이라든가의 槪念을 너무나 皮相的으로 생각하고 잇는것이 事實이다. 現實的 行動을 行爲라고만 생각하게될제 自己의 批判(知性)을 行動化한다는것은 勿論 不可能하다고 말할수업는것이아니다. 그러나 한개의 批判은 한개의 行動으로밧게 表現할수업다는것은 너무도 單純한생각이다. 우리는 批判이라던가 解釋이라던가 思考等이 通俗的으로 생각한 行動으로서만이 自己를表現할수잇는것이 아님을 理解할必要가잇다. 그것이 藝術이나科學에잇서서 自己를 表現하는것도 한개의行爲가 아니면안된다. 다만 그것이 行爲本來의 眞實한意味를 가지느냐 못가지느냐하는것은 專혀 그것이 現實性을把握하엿느냐 못하엿느냐에 달렷슬뿐이다. 萬一그것을 把握하얏다면 그것은 곳物質的힘을 이루는것이다.

이가튼 行爲의規定을 우리는 首肯하므로써 今日의 인테리겐챠의 時代的課題를 受容할수잇는것이다.

그러나 一部의論者에잇서서는 오늘의時代的情況에선 批判의 不可能을 암세우며 行動을 全的으로 인테리겐챠問題外에 두려는 傾向이 업지안타. 그들에게는 오직 態度만이 잇다고한다 그러나 우리는 赤과靑을 識別할힘이업는 視覺을 생각할수업는것가티 眞과僞, 善과惡, 永續的인것과 一時的인것을 識別할눈(眼)을갓지안흔 知性을 생각할수업는것이다. 인테리겐챠란 무엇보다도 그눈을가지고 行爲하는사람이다. 萬一 그가튼 인테리겐스의 技能을 喪失하게된다면 그때엔 어미 인테리겐챠란 存在할수업는것이다.

우리는 行動을斷念한 그들이 敎養에 愼重하야 모든問題에日한 知識의整理에 着手하려는 意圖를 看取할수업는바아니다. 또한 우리는 佛蘭西의 앤사이클로페디스트들의 偉大한歷史的業績을 모르는바도아니다. 그러나 그基底에 어떤 文化의統一的理念이 업슬때엔 그것은 恒常單純한趣味 또는 單純한博識(디렛탄티즘)에 떠러지고만다는것을 알어야할것이다 萬一그것이 現實的인 어떤文化的統一的理念우에서 遂行된다면 그것은 이미한개의實踐的行爲로서 노리評價될것은 勿論이다

우리는 知性과行動의問題를 너무나 抽象的으로 생각할것이아니다 휴매니즘은 元來인테리겐챠의 日常的可能的自覺우에 展開되여왓다 그러므로 휴매니스트에잇서서 知性問題는 知性의傳統보다도 늘『知性을어느곳에서끄집어내여 어떠케 行使시키느냐』에잇는것이다 그것은單純한合理主義的立場에서가 아니라어느때歷史的立場에서 遂行될것이다. (完) 九、一五

古語數題

—學語雜記中에서—

② 田蒙秀

여스

朝鮮初의 文獻을 보면『狐』를『여으』『여스』라 하엿다.

狐狸何足道 — 여으와 솔기엇더 足히니르리오 (杜諺 一의二七)

彼東狐絡 — 뎌 동녁 여으와 일 히리일을 免ㅎ니라 (同 一七의二二)

每夕有狐狸羅列左右 — 나죄마다 여스 솔기 겨테 느러니 버럿다가 (三綱、孝子 [illegible])

狐 — 여스 호 (字會、上의一九)

現行語『여우』는 이『여스』의 轉이며 方言의『여시』는『노른』(獐)에『인』를 붙여『놀인』이라함과 갈이『여스』에『인』를 붙인『여인』의 轉이다. 月印釋譜에 이『엿인』가 보인다.

엿이 獅子ㅣ 아니며 燈이 日月이아니며 (釋譜 一의六六)

진작 今音의 變轉은 正音制作 當初부터 있어왓음을 알수잇다.

그러면『여스』란 말의 語源은 무엇인가. 이 말의 語源은 古語解書를 보면 簡單히 풀린다.

向蠅類數公 — 저주우메 그으기 두어公을 여어보니 (杜諺八의五五)

愁窺高鳥過 — 시름하야 노피새 디나가물 여어보노니 (同 一〇의三六)

虎踞窺中原 — 虎ㅣ 踞하야 中原을 엿보느니 (同 一의五七)

남의 秘密을『窺覬』함을『엿보다』하고,『窺伺』함을『엿듣는다』하며, 사냥개가 구멍에든 토끼나 너구리를 보고 노림을『여운다』하니『여스』는『窺』의 訓『엿』에『으』를 붙여 名詞化한 말임이 틀림없지 않은가.

卽『여스』는 먹을것을 엿보며 돌아다니는 짐승임을 뜻하는 말인것이다.

쇠나기

字會에『涑』을『쇠나기』라 訓하였음에 보인다.

涑 — 쇠나기 속 俗稱驟雨又曰過路雨 (字會 上의三)

『쇠나기』의 語源은 무엇인가. 일찌기 權惠奎氏는 氏의 著『朝鮮語文經緯』에서 이말의 語源을 說明하기를,

『옛적 어느곳에 두사람이 소를 끌고 장으로 팔러가더니 그날 마침 검은 구름이 둥둥떠 고대에 적은비가 올듯한지라 이에 이 둘이 비가 오느니 아니오느니하다가 한사람의 말이 그러면 좋은수가 있으니 그리하자 하매 또 하나이 그리 하기로 하니 그무슨 言約인고 끌고가는 소를 볼며 비가 오고 안옴을 내기함이다. 이것이 끝 소내기의 起源이라 하나니 蒔常風俗詩에 賭牛涑過談風傳의句가 이를 詠함이러라』 하였다. (四三頁參照)

퍽 재미있는 說이기는 하지만『牛』는『쇠』가 아니요『소』이며 또 一二千錢 값어치의 물건을 걸고 내기를 하였다면 모르되 비가 오고 안옴에 어도 소를 걸고 내기하엿다하니 可히 附會임을 짐작할수 잇지않은가.

그리고 갑자기 쏘다지는 비라 하야『쇠나기』를『速落雨』의 變音이라 이르는 이도 잇지만 이도 例의 漢學者流의 謬說이다.

擷採期를 지난 山菜를『쇠엇다』하니『쇠나기』의『쇠』는『過』의 義일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낙』은 무슨 뜻인가 이는『녀긔』『녁』『동녁』『東녁』하는『녁』의 轉音이다.

『녀인』이『나인』으로 轉하고『긋녁』(長女)이『긋난이』로 오늘날 轉하엿음도 이것이니『쇠나기』는 文字 그대로『過路雨』이란 뜻임을 알수잇지 안흔가.

『쇠나기』『쇠낙비』에 依하야『雨』의 古訓이『비』엿음을 깨달을수 있음도 재미있다.

龍飛御天歌에는

大雨三日 — 한비사으리로더 (龍歌 六七章)

不止霖雨 — 한비를아니그치샤 (同 六八章)

와갈이『비』로 되어잇지만 雨曰霏微『霰』는 傳寫錯誤의 鋪人인가?

라한 雞林類事의『霏』는『비』를 잘 表寫하엿고다 하겟다.

夜寒記 (二五)

新人短篇 許俊 作 崔根培 畵

『흥흥흥 허렴가요 헌데 궁세 어맹추년좀 봐우 오야줌 그것한테 보험이야기를한구려』

『보험이야기라니?』

『왜 내가 언젠가 그것이 다론데는 옷이 약해못쓰고 간이보험 든 이야기햇지오 헌데 상철이 아버지가 그러케 죽엇기에 궁금하든생각이잇는차 타 불쑥 그만 그것한테 그걸물어봣구려 그런경우에도 바둘수잇느냐고』

『그러니 작자 뭐라고하지?』

『처음엔 몰으겟노라하드니 준다드라고. 그리겟지오 주나오 줘요 웅 주긴주는군요 난또 그것이 비웃는말로 그러는줄 알고 속이 뜨끔햇는데 허지만 괘니 그랫지오』

『뭘 괘니 그래 그랫기루 그까진녀석이 뭘 알리라고』

『아이구 뭘 아는게 뭐요! 어제저녁도 자리에 누어서 무슨 쥐잡어먹을 궁리를 그러케 허는지 어팔을 어러케 이마에언고 이궁리저궁리하는 가보더니 갑짜기 벌떡 이러기안즈며 이층에 올리가잘러 이니 이불한자리 내라는구려 그리면서 보는눈이 너이년네 러고 무섭고 울고싶고 워 들어오는법이잇는지!』

『그래그래 알어알어 어 먼주속가업서 그랫구만 잔』

『아이구 좀 이러케서요 말 해요 민주사가업서 그랫는지 어년이 매져서 그랫는지 언제 어떠케되는날이잇데도 모!두 인제는 올으겟서요 몰 에 지난거리고는 비녀한개 판지하나밧게업스니 내가보어지 안는날에는 그걸로 로자해서 어뒤라도 홀라가살도란아세요』

『앗다 또 홀라령이 나오는군 머는건가 그까진녀석 그리다 간 저혼자 어디로 갈거이고 그년일루 그러다가 제꺽로 그러케되구말걸 그냥짝되여가는 영하고 그숨쉬는 꼬락서니하고말어야 그러니 자멈가 그리 섯미만부리지안코 기럴리구잇스면 일년이 갈것도아니고 이태를두고 끌것도아닐세 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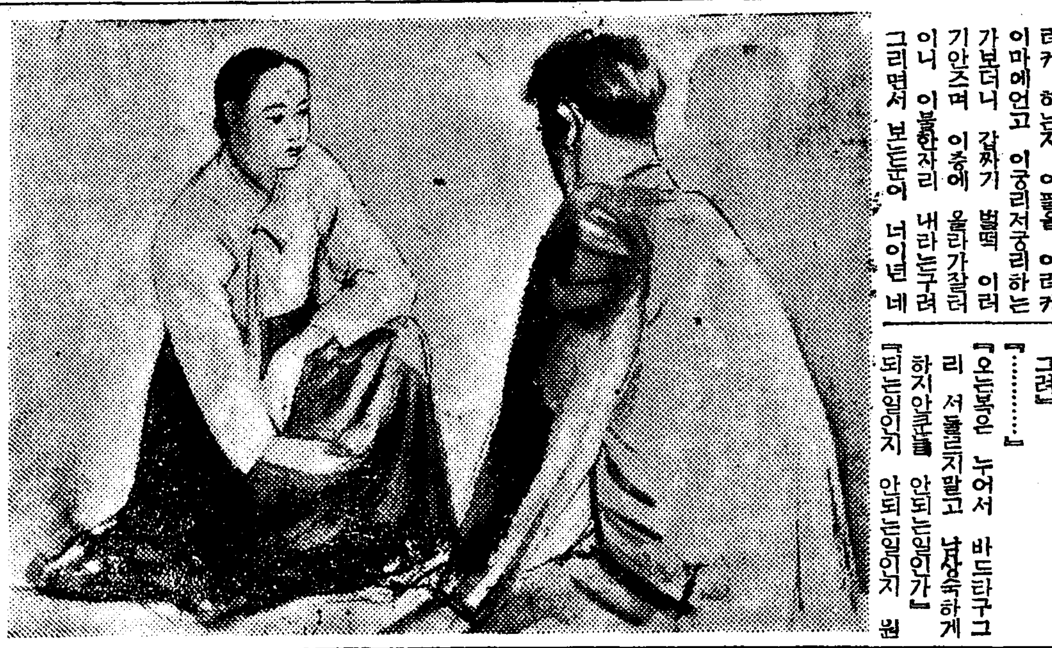
『............』

『온눈복은 누어서 바드타구 리 서둘르지말고 나날수하게 하지안흔걸 안되는일인가』

『되는일이지 안되는일이지 원넌은 외 잠을못자느냐 드키하는데 업다고하니깐 업서도조화하면서 허겁지겁 이층으로 올라가 버리고말겟지 그리구 밤새 그놈의편지가 지랄인가 썻는바봅디다 괄괄아요 그놈의귀도라머는 외그리 섯회를 부리는지 난를 무슨잡어오겟수 그리구나서 자면깨면하는 동안에 어디서 작구 먼 다드밋소리가 들리는구려 이거 이재밤중에 누가 어느집에서 케 밤새 다드미할것은 업는데 하구 정신을채려 이러나안즈면 그 다드미소리는 뚝 업서지는데 고처 누어서 다시잡이들만하면 여전히 그다드밋소리가 들리지안허요 여러케 밤새 업치락뒤치락하다가 어중에서 쿵쿵하는소리에 깜짝 놀라 귀를기우리니까 그쿵쿵거리는 소리가 꽉 무슨 목이나 매다 잘못맨사람의 발버둥하는 소리갓구려 그래가만 가만 칭게를울라가 문에서 엿드럿더니 그제는 아모 찍소리도 나지안켓지오 해서 문을 비죽이 열어볼가말가망서리기도하엿스나 날이 밝으면 알일아아니겟서요 무시무시하기도해서 그대로 내려왓지오 어니 무시무시해서 내려왓서요……그리구 그바람에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게 다드미하는소리가 아니고 귀뜨라미의작난인줄 알엇다우 아마 그래서 사람이 홀리나봐』

『그럼 그래서 홀리다마다』

『어쩌면 그러케도 혼자 약속



은실이에 우리집에 와니가서 뭐라고안합듸까』

『외 그집에갓던가 나 오늘 년 종일 못왓다니깐 아까그 집에서 마장하는데 와서찻는가보두만 업다그르라고그랫더니 가더라는데 그리구 난차에 여진홀맞구자 와갈래 오는길이야 외가서 뭐라든가 무손일이잇서 갓든가』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요 그저 속상하는일이지오 외 오늘이 개 생일날이다면서요』

『응 그래 그래』

『그래 나 청하러왓셔요 내일에 똥처녀홍려구…당신부언께서요』

『당신부언께서요까 키키키 그래 똥은 또외똥』

『그럼 똥이지뭐 당신마나님께서 생일밥이 석어나서 볼분줄 안십의까 다 눈치를채구 허는수작이지 그러기에 그불른리온 그냥밥의 따님께서도 허리춤에갈수는 그잘난똥이의 편지를 갈으치며 편지그리거 피너시면 빼지안는냐고 그리며 말간눈으로 노리고보든거아니겟서요 어쩌면 고런케도 똑잡어뗏고 봐』

『아 오죽 양망구주가 흥 망할년들 무슨 지랄로 도색일을 다 청해 그래 자네는뭐라그리구 못간다고 그랫나』

『월 물로와서 못간다구 그럴수밧게 더엇서요 그리구 그년은 낫브라와서 그리구 좀 르두서고 낡은 굿고해서 속이상해대로상하는데 그년을보내고나니 그냥밥이 또드리서는구만』

부인병으로 고통밧는분

속히낫는치료법이 생겻습니다

부인병은자궁속에병균이잇는때문에 생긴병인만큼 먹는약으로는 절대로 낫지안습니다

물론신여 눅은하고 두통이나며 팔다리와 허리가 쑤시며 땡기고 아푸며 피곤은하나 밤잠을 잘일우지못하야 신음하고 게시지안슴니가? 더구나 아래배와 밋이몹시 쓰리고아푸며 몸저리칠만큼 악취나는 냉증(대하증)이 흠으실것입니다。

어째 이상과가튼 부인병의증세가 생기느냐하면 자궁속에 병균이 들어가서 활동하고잇는 때문에 그와가튼 증세를 여러분께 깨닷게하고 잇는바입니다。

또한 냉증도 처음에 몸이 냉하야서생긴것이 아니고 국부속에서 활동하고잇는병균이 올흘미아마 흥칩과 진물는곳에서 나오는 진물과 고름이오니 하로바삐 병원인 자궁속에잇는 병균을 죽이고 흥칩과 진물을 곳을 다스려야만 부인병이낫게됩니다。

그러면 어떠케하여야 속히 곳칠수잇느냐하면 반드시 직접 병원인 국부에 치료를하여야만 근치되는병입니다。

그러나 흔히 여러분께서는 습관에따라부인병도 먹는약=탕약, 가루약, 물약, 환약, 물려먹는약등으로 낫는줄알고 장복을하시는분이 게시나 먹는약은 배속을지내서 그곳에 약기운이 일으게됨으로 그럿약기운으로는 죽기에는 너무도 굿세인병균이오며 그런힘으로 암울기에는 너무도어렵나게 큰상처가 생겨잇는까닭에 內服藥을 아모리 장복하여도 근치가못되고 다만 병균으로할미아마 부속적으로 생긴다른 여병증세를 조금 다스려놋는것이므로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신바와가티 낫지안는것이엿습니다。

……◇……

그러면 직접가티듯는 국부에넛는약=座藥, 膠球, 허겁으로잔球丸이면 모두 조호냐하면 절대로 그러치안슴니다 보통 민간에서 재래에 팔리워오는 넛는약은 모두가일장일단의 폐해가잇스니 그런종류의약은 大病院서 쓰지안는것이므로 보아도 그효과를 짐작하실수잇슬것입니다。그러므로 부인병치료는 반드시 전문病院治療나 혹은 帝大病院서쓰는 부인병근치약『와세돈球』로 곳치셔야만 근치되어버립니다。

어런증세의분은 와세돈球로 곳 근치됩니다

아래배 허리 아푼분

치운 요새에 허리와아래배 손발이 몹시 스리고아프며 땡기고 결니며 월경때면 더욱 아푼분, 월경이고르지못하고 두통, 현기증, 불면증, 변비증, 속병이생기고 살결이거치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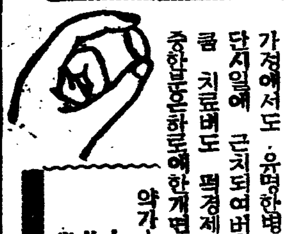
대하증 (냉증)

국부가 가렵고 쑤시고 아푸며 오줌이 잣고 뜻뜻한 이불속에들어가면 몹시 자려웁거나 신열이나고 냉이 흐르는분, 고름빗, 누른빗, 푸른빗이도드며 악취가나서 고통밧는분……

자복업는분

부부화합에 자미를모르시거나, 혹은 고통을늣끼는분, 아해를 못배시는분, 놀 유산, 사산하시는분, 속히 늙어저서 살주름과 파래가는 매력을일흔하시는분들은……

두말업시 帝大病院서쓰는『와세돈球』로 치료하시면 가정에서도 유명한병원치료와 똑가튼 효과를어더서 단시일에 근치되어버립니다。더구나 약갑도실비인만큼 치료비도 퍽경제적이오며 경한분은이통에 한개 중한분도한달에한개면충분합니다



약가 — 十二日分……一圓二十錢 廿四日分……二圓二十錢 卅六日分……三圓四十錢

처음으로 민간에 제공된 의사전문약

약한개로 三分間이면 효과가 나타나는『부인병약』와세돈球는 東京帝國大學病院 赤十字病院을위시로 府立市立과유명한大病院에서 매일수만흔 부인병환자를 구원하고잇는『의사전문약』을 처음으로민간에제공한약이이니 그신용과 약효는더 말할필요도업습니다。

약효를 더욱 확실하게하기위하야『와세돈球』에는『녀성호르몬』과『비타민AD』가 가입되어잇슴으로 부인병치료뿐만아니라 살결을어여쁘게하고 보시키고 女性美를 다시곰 차즈시게 만들어주는신효를가지고 잇습니다 그러므로 하로바삐 부인병을근치시키실여러분은 조금도 주저마시고 병세를 조선문으로 자서히 쓰신후

東京市芝區新橋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二五、〇一九)

으로 주문하시면 대금인환으로 도송정해드리며 적정치조선의치료법과 조선문으로된 위생지식서류 河合·木村兩博士著의『女性의新生活』을거저드립니다。—(日東製藥會社調整)—

朝鮮第一재미잇는雜誌 "少年" 十一月號 집집마다大好評!!

『少年』十一月號가나왓습니다。조선제일의재미잇고조선제일 유익한 잡지!이러케갓자고 조흔 잡지는 처음 붓낫다고 학교마다 집집마다 칭찬이자자합니다。한권에 단十錢! 지난달호는 나오자 다팔려업서서 책사마다 야단이낫섯습니다。이달호는 지난달호보다 내용이더풍장하니까 더욱히 절판이 될것입니다。시방곳주문하십시오。(一年先金一圓十錢)『少年』十一月號內容은 이러합니다。

★主要內容★ ★世界 少年畵報『히틀러유-겐트』★藝術은언제부터 생겻는가?洪以燮 ★動物들의運動會(漫畵)·李柱厚·金景植·朴仁楣 ★두구를 본바들가?(訓話)李勳求★이달오음놀이『하품은왜나나?』金思翎★내가드른그중 재미잇는옛날이야기 高在天 ★지붕속의王女 (長篇小說)李雪 ★少年探偵團(探偵小說)朴泰遠★타기조하하는꼬마(漫畵)玄在德 ★다람쥐 노래(童謠)姜小泉★이다는시골(畵生)朴鎔德★少年音樂讀本『歌劇王와네르』洪蘭坡 ★고양이(童謠)宋昌一★고구마(學校小說)玄德★나무하러가기(그림)鄭玄雄★정다운두동무(畵報)음세든販★偉人手帖(傳記)李相基★그림俗談集★척척問答★少年談話室★한글자풀어(知識)韓宇植★난少年이외다(感想)金應柱★入選童謠集★少年愛讀者寫眞帖★가을들(表紙)金奎澤★이밖게도수두룩!! 一册十錢 京城太平通 朝鮮日報出版部發行

天下名藥 百補丸

只今부터服用하시요

朝夕生凉!

三伏더위에 시달린몸을 하루밧비 補하시오 느지면 大病될 念慮가잇습니다

肺病、不足症、早老症、慢性胃腸病、廢陽等의不治의大病도 조고마한 虛弱으로 부러 始作됩니다

虛弱이過度하면百藥이無効

체증을 根本的으로 곳치십시다

陽氣不足을 根本的으로곳칩시다

百補丸의特長

一、大補脾胃하야 체증根絕!

二、大補元氣하야 陽氣永續!

三、氣血不足、神經衰弱、肺病、해等이 原因的으로 一掃됩니다

生男生女 天下待望의 世界的 婦人靈藥

부인자궁병 냉병 경도부조 대하증에 婦人百補丸

藥價 百補丸 一劑 十圓 婦人百補丸 一劑 七圓 無料進呈 [illegible]

京城府堅志町五ノ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番、三三〇番、振替五番